

연구보고서

2023

04

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경영

노건엽·조영현·이승주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목 차

• 요약	1
I. 서론	2
1. 연구배경 및 목적	2
2. 선행연구	3
3. 연구 내용 및 구성	5
II. IFRS17 주요 내용과 설문 조사	6
1. 도입 경과	6
2. 주요 내용	10
3. 설문 조사	19
4. 소결	28
III. 주요 경영지표 변화	31
1. 개요	31
2. 수익	33
3. 이익	35
4. 자본	41
5. 소결	52
IV. IFRS17의 경영 전략적 유인과 시사점	55
1. 보험영업 관리	55
2. 손익 관리	58
3. 자본 관리	61
4. 소결	69
V. 가치경영을 위한 과제	71
1. 가정 검증을 위한 프로세스 확립	71
2. 자본 관리 효율성 제고	75

VI. 결론

82

• 참고문헌

84

표 차례

〈표 II-1〉 IFRS4와 IFRS17 비교	6
〈표 II-2〉 국내 보험산업 IFRS17 준비과정	10
〈표 II-3〉 요소별 특징	11
〈표 II-4〉 재무상태표 비교 예시	15
〈표 II-5〉 포괄손익계산서 비교 예시	16
〈표 II-6〉 보험이익 회계처리 사례 비교	17
〈표 II-7〉 설문조사 항목	20
〈표 II-8〉 전환 시 회계처리	22
〈표 II-9〉 향후 관리지표	24
〈표 III-1〉 전환일 보험계약마진 추정	34
〈표 III-2〉 상품별 계약 가정	36
〈표 III-3〉 상품별 사업비 가정	37
〈표 III-4〉 상품별 해지율 가정	37
〈표 III-5〉 상품별 보험계약마진을 비교	39
〈표 III-6〉 사망률 변화 시 보험계약마진을 비교	39
〈표 III-7〉 해지율 변화 시 보험계약마진을 비교	40
〈표 III-8〉 국고채 수익률 변화 시 보험계약마진을 비교	40
〈표 III-9〉 장기선도금리 변화 시 보험계약마진을 비교	41
〈표 III-10〉 할인율 모수	43
〈표 III-11〉 할인율 산출기준(대만)	44
〈표 III-12〉 자본 세부 항목 금액 및 비중(2021년 말)	48
〈표 IV-1〉 상품 가정	59
〈표 IV-2〉 적기시정조치	61
〈표 IV-3〉 발행잔액(국고채)	65
〈표 V-1〉 계리적 가정 주요 내용	72
〈표 V-2〉 계약 이전 세부 내용	76

그림 차례

〈그림 II-1〉 IFRS17 진행경과	8
〈그림 II-2〉 이익인식 방법 비교	12
〈그림 II-3〉 원천별 이익 표시	13
〈그림 II-4〉 손익계산서 비교 예시(IFRS4, IFRS17)	14
〈그림 II-5〉 후속 측정 시 손익 인식	14
〈그림 II-6〉 전환 시 부채평가 적용방법	18
〈그림 II-7〉 공정가치법	19
〈그림 II-8〉 IFRS17 부서 구성 예시	21
〈그림 II-9〉 ‘보험계약마진’과 ‘조정 보험계약마진’ 비교	24
〈그림 III-1〉 보험료 및 자산 추이	31
〈그림 III-2〉 당기순이익과 ROE 추이	32
〈그림 III-3〉 자본 추이	32
〈그림 III-4〉 소급법과 공정가치법 비교	33
〈그림 III-5〉 제도별·상품별 보험이익 비교	35
〈그림 III-6〉 할인율 곡선(선도금리)	38
〈그림 III-7〉 할인율 곡선 예시(현물이자율)	42
〈그림 III-8〉 국가별 듀레이션 갭과 이자역마진 비교	45
〈그림 III-9〉 Solvency II 적용 장기선도금리(UFR) 추이	46
〈그림 III-10〉 총자산 대비 자본 비율	47
〈그림 III-11〉 재무상태표 주요 변경사항	49
〈그림 III-12〉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흐름도	50
〈그림 III-13〉 회계제도 변화의 영향	51
〈그림 III-14〉 자산 분류 변화(독일 알리안츠 그룹)	52
〈그림 IV-1〉 보험종류별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 추이	55
〈그림 IV-2〉 생명보험회사 보험종류별 신계약 건수 및 초회보험료 비중	56
〈그림 IV-3〉 생명보험회사 향후 2~3년간 주력 상품전략	56
〈그림 IV-4〉 보험계약 현금흐름	57
〈그림 IV-5〉 IFRS4와 IFRS17 손익 비교	58
〈그림 IV-6〉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및 위험손실액 전망	59
〈그림 IV-7〉 실손의료보험 경과기간별 부채규모 및 당기손익 예시	60

〈그림 IV-8〉 실손의료보험 현금흐름추정 요소	60
〈그림 IV-9〉 생명보험회사 자본성증권 발행 추이	62
〈그림 IV-10〉 손해보험회사 자본성증권 발행 추이	62
〈그림 IV-11〉 조건부 자본증권 유형	63
〈그림 IV-12〉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비교	64
〈그림 IV-13〉 국고채 금리기간구조 비교	65
〈그림 IV-14〉 보험회사 국고채 순매수 현황('18. 1~'22. 3)	65
〈그림 IV-15〉 수익률 비교(국공채, 외화유가증권)	66
〈그림 IV-16〉 외화유가증권 금액 및 비중	66
〈그림 IV-17〉 업권별 파생상품 거래비중	67
〈그림 IV-18〉 채권선도 거래현황 추이	67
〈그림 IV-19〉 국고채 발행 추이	68
〈그림 V-1〉 보험부채 검증 프로세스	73
〈그림 V-2〉 실무표준 개선방안	75
〈그림 V-3〉 대만 알리안츠 영업이익 변화	77
〈그림 V-4〉 RBC 비율 비교	77
〈그림 V-5〉 계약 재매입 절차 예시(AXA Belgium)	78
〈그림 V-6〉 Ethias의 개인 생명보험 부채 추이	79
〈그림 V-7〉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 비교	80
〈그림 V-8〉 상품별 공동재보험 사례	81

Introduction of IFRS17 and Value-Based Management of Insurance Companie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17 (IFRS17), in which insurance contract liabilities are estimated at market value and the revenue recognition method is changed, will be implemented in 2023 after a long preparation period. Compared to the existing accounting standard (IFRS4), IFRS17 is expected to provide more economically meaningful information for insurance companies. This could potentially affect their management strategie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IFRS17 on insurance companies' business activities, such as profit and capital, business policies, and future change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its implications.

The adoption of IFRS17 will result in different levels of profit and capital for insurance companies depending on the transition method used. Insurance profits can be generated stably throughout the insurance period, but there may be differences in margin rates by product. Protection-type products appear to have relatively higher margin rates compared to savings-type products. Meanwhile, the burden of managing insurance companies' capital has been alleviated due to policies that increase regulatory acceptance and recent increases in interest rates.

Under IFRS17, insurance revenue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CSM). Both life and non-life insurance companies have already changed their sales strategies to focus on long-term protection-type products with high CSMs several years ago. Under IFRS17, securing CSM becomes a strategy to increase the profitability of insurance companies, so it is likely that the business policy

centered on long-term protection-type products will continue. Meanwhile, as assump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surance companies' profits and losses, stakeholders such as regulators, investors, and consumers are expected to demand strict verification of assumptions. Addition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17, a new solvency system called K-ICS will also be introduced, so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solvency ratio using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derivatives, and other financial instruments.

Most insurance companies have revealed plans to apply CSM as an evaluation indicator, and as a result, the concentration on high-profit products is expected to increase, intensifying competition among insurance companies. If not only insurance risk but also market risks such as interest rates are considered in using 'adjusted CSM' as an evaluation indicator, risk-based value management is expected to be achieved to some extent. The new insurance accounting system based on market value evaluation may amplify the volatility of the capital and performance of the insurance industry. Therefore, continuous monitoring,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are necessary for stabl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improvement of the market regulation function.

요약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 적용, 보험회계의 수익인식 방법 등이 달라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치고 2023년부터 시행된다. IFRS17은 기존 회계기준(IFRS4)에 비해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에 근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IFRS17이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익 및 자본, 영업정책, 향후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IFRS17 도입 시 보험회사의 이익 및 자본 규모는 전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이익은 보험기간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상품별로 마진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장성 상품이 저축성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과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관리에 대한 부담은 완화되었다.

IFRS17에서 보험수익은 보험계약마진(CSM)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미 수년 전부터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모두 CSM이 높은 장기 보장성 상품 위주로 영업정책이 변경되었다. IFRS17에서는 CSM 확보가 곧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되므로 장기 보장성 상품 중심의 영업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가정이 보험회사의 손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감독당국, 투자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가정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FRS17 도입과 함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도입되므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보험회사가 평가지표로 CSM을 적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 높은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 보험회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CSM 자체가 아니라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한 '조정 CSM'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면 리스크에 기반을 둔 가치경영은 일정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제도는 보험산업 자본 및 성과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관리·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보험산업에서 오랜 기간 준비한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 2023년부터 시행된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 적용, 보험회계의 수익 인식 방법 변화를 들 수 있다.

보험부채 측정방식은 현행 원가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된다. 기존(IFRS4)에는 최초 보험계약 시 기초율인 예정이율, 예정위험률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현재(IFRS17)는 평가시점의 위험률과 이자율을 재산출하여 적용한다. 또한 보험계약의 기대이익인 '보험계약마진'이 보험부채에 포함되고 별도로 표시된다.

보험수익 인식 방법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된다. 기존(IFRS4)은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하나 현재(IFRS17)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사업비 등에 대응되는 예상 보험금, 예상 사업비와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등이 보험수익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회계적인 변화로 볼 수도 있으나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에 근접한 정보가 회계상 노출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산운용, 자본 및 손익관리, 성과평가 등 경영전략이 과거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영 변화로는 매출 중심에서 가치 중심의 영업 방식 변화, ALM 기반의 자산운용, 리스크 중심의 경영 관리 등¹⁾이 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IFRS17 도입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볼 때, 보험회사가 가치 중심의 영업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가거나 리스크 중심 경영 관리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감독당국은 여전히 보험산업의 모습을 '단기실적 위주의 과당경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지속,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 상품개발, 무분별한 보장금

1) 금융감독원(2015)

액 인상 및 인수기준 완화로 인한 장기 건전성 저해 우려,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체계 미흡' 등으로 진단²⁾하고 있다. 새로운 회계제도의 시행으로 보험회사가 단기 매출 중심 경영에서 장기 가치 중심 경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 혹은 기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IFRS17 도입이 일으킬 보험회사 경영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리스크에 기반을 둔 경영관리를 가치 경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IFRS17 도입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주요 지표 변화 및 보험회사가 주요 지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략적 유인을 점검해 본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주요 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혹은 보험회사의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 실행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2. 선행연구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연구는 김해식(2001)에 의해 최초로 진행된 후 경영전략, 상품구성, 자산운용, 자본관리, 평가모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기형·김해식(2004)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해외 보험회사 CEO들의 인식을 소개하였다.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인해 실적배당형, 단기형 보험상품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단기채권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았다. 이장희·김동겸(2007)은 새로운 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재무제표 변동성 증대, 자본 조달 비용의 상승, 투자형 및 단기상품의 확대, 단기 위주의 자산운용, 위험 관리 개념이 원가중심에서 이익 중심의 변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후 김해식(2017a)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제도에 보험산업이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및 이익창출능력 제고, 감독 로드맵을 IFRS 일정과 분리한 탄력적 운영, 재보험, 파생상품 등 보험회사의 적극적 위험관리수단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RBC제도에서 위험경감 인정을 제시하였다.

한편 김해식(2017b)은 저성장의 경제 환경 및 수익성과 위험관리를 우선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경쟁우위에 따라 주력할 상품구성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임을

2) 금융감독원(2022a)

역설하였다.

황인창·임준환·채원영(2018)은 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장기채권 투자에서 해외 채권투자로의 증가 현황을 보여주면서 자산 구성, 헤지비용 등을 반영한 정교하고 다양한 환헤지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영현·이혜은(2017)은 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 자본확충 여력과 외부 자본확충 환경을 살펴보고 제도 변화에 따른 연착륙 방안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조영현·이혜은(2018)은 IFRS17과 동시에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보험회사는 고성장애 최적화된 사업모형을 저성장 환경에 맞게 혁신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됨을 김해식(2017c)은 설명하였고, 한승엽(2021)은 국내 대표 보험상품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IFRS17 이익 규모가 보험계약마진 상각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정도진·김수미(2019)는 IFRS17 도입 시 적정 감독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학계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IFRS17 시행시기와 시행방법뿐만 아니라 최선추정부채, 할인율, 위험조정 등 감독기준방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김준현·정도진·정아름(2020)는 보험회사의 IFRS17 담당자와 주요 회계법인 보험업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IFRS17 재무정보에 대한 정보유용성을 논의하였다.

한편 IFRS17 관련 연구를 평가모형의 요소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보험부채 평가액에 대한 영향을 개략적으로 추산해 보는 연구가 시작되었다(윤영준 2011; 오창수 외 3인 2013; 오창수·박종각 2016). IFRS17에 대한 최초 기준서가 발표된 2017년부터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최저보증비용 평가, 계약자행동을 고려한 동적헤지율 반영 등의 연구가 활발하였다(오창수·박규서 2016; 오창수·김성수 2017; 오창수·임현수 2017; 오창수·은재경 2017; 오창수·김수은 2018; 오창수·송상욱 2019; 오창수·정종국 2019; 오창수·김형조 2020).

평가 요소 중 할인율은 노건엽·박경국(2014)에 의해 최초로 평가방법이 제시된 이후 노건엽 외 2인(2016)은 유동성프리미엄 산출 시 산금채를 이용한 커버드본드 방법을 제안하고, 금리연동형 부채평가를 위해 혼합모형을 이용한 공시이율 및 할인율 시나리오로 보험회사 대표상품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 등 연구를 좀 더 발전시켰다. 또한 노건엽(2021)은 최종관찰만기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국내 최초로 제안하고 장기선도금리 산출을 위

해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오창수 외 2인(2017)은 상향식·하향식 접근법, 장기 금리 추정, 보외법 등 할인율에 대한 문헌 조사와 이론적인 적용방법을 고찰하였다.

위험조정에 대한 연구는 조재훈(2016)이 손해보험계약의 지급준비금 변동성 측정을 위한 위험조정 산출방법으로 깁스 샘플링(Gibbs sampling) 제시와 더불어 국내 자동차보험의 지급보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하였고 박규서·김세중(2018)은 Lee-Carter 모형을 이용한 사망률 관련 위험조정 측정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IFRS17 연구는 대부분 생명보험 부채평가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조재린·김해식(2015)은 일반손해보험에 대해 보험 부채를 평가하고 당기손익의 추이를 IFRS4와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IFRS17 도입이 보험회사 경영지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경영전략적 유인 및 가치 경영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둔다. 또한, 보험회사 실무 전문가와의 설문조사, 보험상품별 마진을 비교 및 민감도 분석 등을 활용하여 IFRS17에 따른 경영상 영향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점검하였다는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다.

3.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지표 변화를 살펴본다. 경영지표로서 수익, 이익, 자본의 규모와 변동성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보험회사가 주요 지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략적 유인을 점검해 본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주요 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혹은 보험회사의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 실행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다.

제II장에서는 IFRS17의 도입 경과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업계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변화를 예상한다. 제III장에서는 수익, 이익, 자본과 같은 주요 경영지표의 변화를 설명하고 제IV장에서 보험영업, 이익, 자본에 대한 경영 전략적 유인을 살펴본 후 제V장에서 가치경영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 결론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II

IFRS17 주요 내용과 설문 조사

1. 도입 경과

가. IFRS17 도입 과정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1997년부터 작성을 시작하여 2020년 6월에 최종 기준서가 발간되었다. 국내에서는 2021년 6월에 시행일을 확정된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³⁾되었다. IFRS17은 기준서 작성부터 시행까지 25년간 진행된 초장기프로젝트이며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1단계에 해당하는 IFRS4는 각국의 회계관행을 허용하나 2단계인 IFRS17은 보험계약 회계 처리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투자자 등 재무제표 이용자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FRS4를 대체하는 IFRS17 제정이 추진되었다.

〈표 II-1〉 IFRS4와 IFRS17 비교

IFRS4	IFRS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의 회계관행 허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으로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알려주기 곤란- 수익인식 시 현금주의 적용으로 일반회계원칙과 충돌- 보험이익과 투자이익 원천 파악이 어려움- 보험산업의 특수한 회계처리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으로 보험회사 현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공시- 수익인식은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일반회계원칙에 부합- 보험 및 투자이익의 원천을 파악하기 용이- 다른 금융산업과 비교가능성 증가

자료: 금융감독원(2021a)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12. 6), “보험회사의 시가평가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예정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新제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해설서 마련, 업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제도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은 1999년 12월 이슈보고서 발간, 2001년 11월 초안을 공개하였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2단계에 걸쳐 기준서를 제정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단계 기준서가 2004년 3월 발표되었다.⁴⁾

국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2022년까지는 1단계인 IFRS4를 적용했다. IFRS4는 각국 보험부채 평가방법을 대부분 인정하나 일부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 사항을 살펴보면 보험 상품을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약은 금융상품 회계기준(IAS39)을 적용한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자본으로 적립하며 평가시점 기초율로 보험부채를 재평가하는 부채적정성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LAT)를 시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단계인 IFRS17에서 본격적으로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수익인식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IFRS17은 시행일을 확정하기까지 2번이나 시행시기가 연기되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IFRS17 기준서를 발표하고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명시하였으나, 2018년 11월 회의에서 각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일을 1년 연기한 2022년 1월 1일로 결정하였다. 이후 2020년 3월 회의에서 시행일을 추가로 1년 연기하여 2023년 1월 1일에 시행할 것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였다.⁵⁾

최초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한 것은 ① 소규모 보험회사의 외부 자원 활용 제한 및 소프트웨어 전달 지연 ② 다양한 보험계약에 대한 IFRS17 적용 및 시행 중 발생 가능한 기술적 문제 해결 ③ 감독목적 보고 및 세제 요구사항 검토 ④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 준비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 후에도 IFRS17은 국제적으로 처음 적용하는 보험회계 기준이며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전 세계 동시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2023년으로 시행 시기가 추가적으로 연기되었다.

국내는 2021년 4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을 의결⁶⁾ 함에 따라 2021년 6월 국내 시행일 확정⁷⁾ 및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공표(2021년 6월 10일)하였다.

이로써 국내 보험산업은 해외와 동일하게 2023년 1월 1일부터 IFRS17을 시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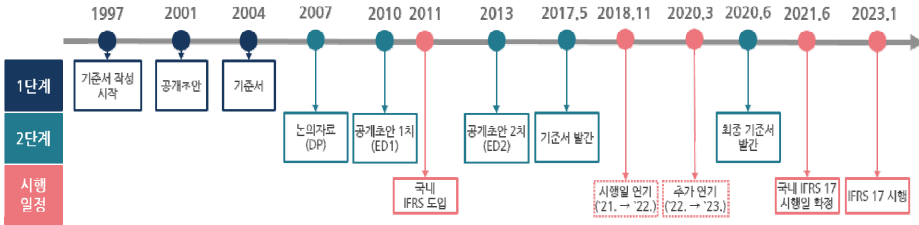
4) 이장희·김동겸(2007)

5) IASB(2020)

6) 한국회계기준원(2021. 4. 2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6. 10),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 1.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림 II-1〉 IFRS17 진행경과



나. 국내 보험산업 준비 과정

국내 보험산업은 2013년 9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II) 도입준비단」을 구성⁸⁾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였다.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하여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도입준비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실무적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파견 직원으로 구성된 TF도 조직하였다. 이를 통해 IFRS17 도입 관련 설명회가 최초로 개최(2014. 9. 19)되고 IFRS17 영향평가(2013년 말 기준)도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4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해 오던 도입준비단을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개편⁹⁾하였다. 확대·개편한 도입준비단은 제도 검토 외에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인식 확산 및 보험회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위험조정 및 할인율 연구용역 수행, 학회와 연계한 세미나 개최, 영향평가 방법론 및 해설서 작성, IFRS17 기초과정에 대한 대면 및 동영상 강의, 홈페이지 개설 등 IFRS17을 도입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더불어 신지급억력제도에 대한 논의도 시작¹⁰⁾된 시기였다.

2017년 3월에는 당국과 보험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주요 감독제도 추진방향을 심의하는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가 발족¹¹⁾되었다. 이 시기

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9. 24),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II) 도입준비단」 구성”

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3. 30),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10) 금융감독원 IFRS4 2단계 도입준비 TF(2015. 12. 21),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감독 회계 운영방향”,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과 대응 컨퍼런스

1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3. 8),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에는 공동위원장으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생명·손해보험회사 협회장을 포함하고 업계 자문단에 보험회사 CEO를 참여시키는 등 신제도에 대해 업계가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제도 변화 대응을 위해 현행 LAT 및 RBC제도를 개선하고 감독회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LAT 제도의 할인율 평가방법을 IFRS17과 유사하게 변경하였다. RBC제도에서는 금리위험액 잔존만기 구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계약만기까지 산출하는 IFRS17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회사 간 재무제표 구성항목 일원화, 보유계약 공정가치평가 반영, 원칙중심 사업비 배분기준 마련 등 감독회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2018년 11월이 되어서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이 구성¹²⁾되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간 운영되어 온 도입준비위원회보다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및 예금보험공사 등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공동재보험 제도, RBC 금리위험액에 금리파생상품 반영,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 등 자본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었다. 또한 법규개정을 위한 추진단¹³⁾을 구성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전반에 걸쳐 IFRS17과 연관된 법규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준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¹⁴⁾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IFRS17이 시행되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법률상 회계 분류 변경 및 용어가 정비되고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파생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 한도 폐지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자본관리 수단이 확충되었다.

1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11. 27),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1. 30), “23년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개최 -”

1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12. 28), “보험업권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2.12.28) 통과 -”

〈표 II-2〉 국내 보험산업 IFRS17 준비과정

구분	주요 내용
태동기 (2013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 IFRS 전담 TF 조직, 설명회 및 영향평가 최초 시행
성장기 (2015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준비단 확대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단장) 금융위원회 국장,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 제도 검토, 연구 용역, 세미나, 해설서, 동영상 강의, 홈페이지 개설 등
도약기 (2017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원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생명·손해보험회사 협회장 - 제도 정착을 위한 LAT 및 RBC 개선,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 제시 등
제도 완성기 (2018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법규개정추진단 구성 및 법규 개정안 제시, 자본관리를 위한 공동재보험,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 등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9. 24),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II) 도입준비단」 구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3. 30),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정착방안 마련 추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3. 8),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11. 27),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2. 주요 내용

가. 재무제표 표시

1) 개요

IFRS17과 IFRS4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時價平價)와 발생주의에 기반을 둔 수익인식 기준 변경이다. IFRS17은 부채 시가평가를 위해 평가시점에 가정을 재산출하며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미래현금흐름은 보험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현금흐름의 평균값으로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한 순 유출액으로 산출한다. 현금유출액은 보험금, 직접사업비 등이 포함되고 현금유입액은 보험료가 해당된다. 할인율은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며 보험계약기간이 장기일수록 할인율이 미래현금흐름 규모

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 위험조정은 현행 정보로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부채이다.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을 합쳐서 이행현금흐름(Fulfillment cash flows)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보험계약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은 보험계약에 대한 미실현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며 향후 점진적인 이익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보험계약에 대한 미래 이익을 일단 보험부채로 평가하고 이후 일정기준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IFRS4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3〉 요소별 특징

구분	특징
미래현금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현금흐름의 순유출액(현금유출-현금유입)으로 평균값으로 산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유출: 보험금, 직접 신계약비 등 - 현금유입: 보험료
할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현금흐름의 시간가치로 무위험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 조정하여 산출
위험조정(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불확실성을 보완
보험계약마진(C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 장래이익의 현재로 향후 점진적으로 이익으로 전환됨

자료: 금융감독원(202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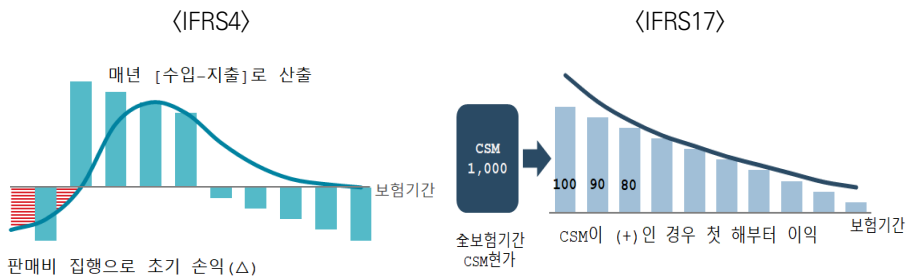
IFRS17은 구체적인 산출방법 없이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감독회계에서 비교가능성을 위해 최소한의 산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험조정은 보험위험으로 한정되며 신뢰수준 75%를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다. 할인율은 감독당국이 직접 산출한 할인율 곡선을 감독당국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보험회사에 제공한다. 또한 보험계약마진은 경과연도별 수익인식 금액에 대한 산식을 제공한다.

$$\text{보험계약마진 수익인식}_t = \text{보험계약마진}_t \times \frac{\text{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_t}{\sum_{k=0}^{n-k} \text{기대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_{t+k}},$$

(n = 잔여 현금흐름 프로젝션 기간)

이 산식을 살펴보면 보험계약마진을 서비스제공량¹⁵⁾에 비례하여 인식하므로 보험계약 기간별 유지자 수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보험계약기간이 장기라면 기간경과에 따라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계약자 수가 감소하므로 서비스제공량도 초기에는 많지만 기간경과에 따라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기간 초기에 보험계약마진 상각액이 많고 이후 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되는 형태로 인식하게 된다. 이로 인해 IFRS4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후 판매비 집행 등으로 인해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IFRS17은 초기부터 이익을 인식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계약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2〉 이익인식 방법 비교



한편 최초 인식 시 이행현금흐름의 합계가 순유출인 경우를 '손실부담계약'이라고 하며 이익이 발생하는 계약과 구분하여 평가한다. 즉, 손실부담계약 집합의 순유출금액은 손실로 즉시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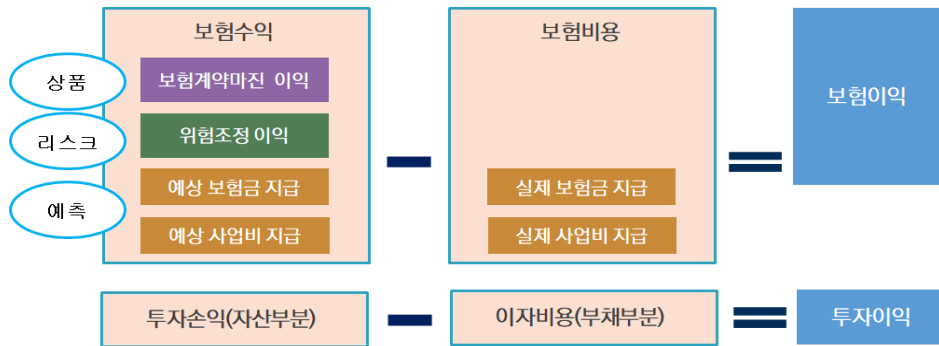
예를 들어, 현금유출 현재가치가 7,500원이고 위험조정이 1,000원인 경우 현금유입(보험료)이 10,000원이라면 보험계약마진은 1,500원(=10,000원-7,500원-1,000원)으로 이익계약이 되어 보험기간 동안 배분하여 이익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보험료가 8,000원이라면 △500원(=8,000원-7,500원-1,000원)이 되어 손실발생계약으로 인식한다. 즉, 500원은 손실금액으로 즉시 인식하며 이때 보험계약마진은 음수가 아닌 '0'으로 처리한다.

이처럼 IFRS17에서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손실은 즉시 인식하는 반면 이익은 보험기간 동안 배분하여 인식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표시된 보험부채를 이용하여 원천별로

15) 보험금 지급 등 보험보장서비스와 투자관련서비스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험계약서비스라고 함

이익을 나타낼 수 있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험부문과 투자부문으로 구분한 후 발생 원천별로 당기손익을 보고하며 보험이익의 경우 상품마진, 리스크마진, 예측마진으로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3〉 원천별 이익 표시



자료: 금융감독원(2021a)

이처럼 IFRS17은 IFRS4와 다르게 손익계산서에서 원천별 이익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¹⁶⁾ IFRS4는 ① 영업보험료가 보험 관련 수익이지만, IFRS17은 ② 보험수익에서 보험료가 삭제되고 보험금, 사업비, 보험계약마진 등에 기반을 두어 수익을 인식한다. 보험금과 사업비 등에서 예상과 실체가 동일하다면 보험계약마진에 의해 결정되므로 안정적인 이익 인식이 가능하다. ③ 또한 보험관련비용으로 분류된 준비금 전입액의 부채 이자비용이 IFRS17에서는 투자비용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④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이 명확히 구분되어 이익별 원천을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6) 노건엽 외 3인(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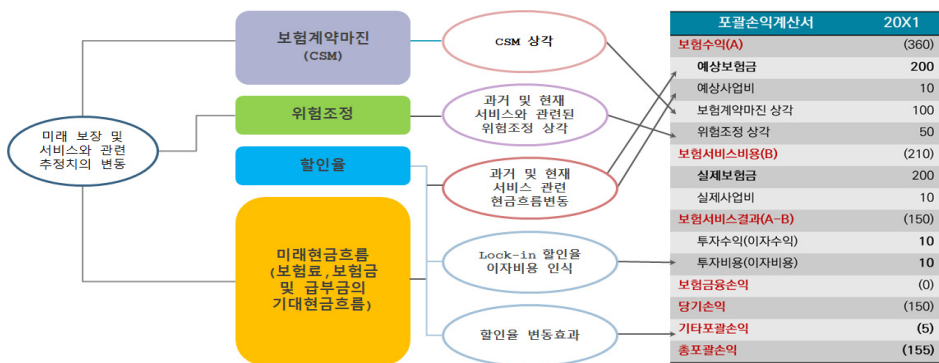
〈그림 II-4〉 손익계산서 비교 예시(IFRS4, IFRS17)

IFRS 4		IFRS 17	
I. 보험관련수익	500	I. 보험수익	200
1. 보험료수익	500	1. 예상 사고보험금, 예상 직접유지비	105
II. 보험관련비용	410	2. 예상 직접신계약비 배분	15
1. 지급보험금	300	3. 보험계약마진, 위험조정	80
- 사고보험금	100	II. 보험비용	120
- 중도급부금	200	1. 실제 사고보험금, 실제 직접유지비	105
2. 직접유지비	5	2. 실제 직접신계약비 배분	15
3. 신계약비 상각	40	3. 간접사업비	0
4. 준비금 전입액*	65	III. 보험이익	80
III. 보험관련이익	90	IV. 투자이익	5
IV. 투자이익	20	1. 투자수익	25
1. 투자수익	25	2. 투자비용 (부채이자비용 등)	20
2. 투자비용	5	V. 영업이익	85
V. 영업이익	110		

* 준비금 증감(50) + 부채이자비용(15)

또한 최초 인식 이후 보험회사는 후속적으로 이행현금흐름을 재평가해야 한다.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추정치의 변동에 의해 미래현금흐름, 위험조정이 변동하여 보험계약마진이 조정된다. 보험계약마진 조정 시 이자비용은 최초 인식 시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 때 할인율 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만 인식하거나 포트폴리오별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구분하여 인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할인율 변동효과를 OCI로 인식하면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본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II-5〉 후속 측정 시 손익 인식



자료: 회계기준원(2019)

2) 예시

재무상태표의 경우 고금리확정형 보험상품 판매가 많은 회사를 가정하여 작성하였다.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연신계약비,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현금흐름과 관련 있는 항목은 자산에서 보험부채로 포함된다. 또한 할인을 변동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본이 대폭 감소(70 → △20)하였다.

〈표 II-4〉 재무상태표 비교 예시

〈IFRS4〉			〈IFRS17〉	
자산	650	⇒ △40 ¹⁾	자산	610
1. 금융자산	600		1. 금융자산	590
2. 유·무형자산	20		2. 유·무형자산	20
3. 이연신계약비	30			
부채	580	⇒ +50 ²⁾	부채	630
1. 보험부채	560		1. 보험부채	630
2. 계약자 지분조정	20			
자본	70	⇒ △90 ³⁾	자본	△20
1. 자본금·자본잉여금 등	10		1. 자본금·자본잉여금 등	10
2. 이익잉여금	50		2. 이익잉여금	5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0

주: 1) 자산 감소(40)는 신계약비(-30), 보험계약대출(-10)의 보험부채 차감요소로 조정함

2) 부채 증가(50)는 신계약비(-30), 보험계약대출(-10), 계약자지분(-20), 부채시가 평가(+110)

3) 자본 감소(90)은 부채시가 평가(-110)와 계약자지분의 자본(+20)으로 조정함

자료: 금융감독원(2021a)

손익계산서의 경우 보험수익은 급격히 감소하나 영업이익은 큰 변동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보험수익은 투자요소(저축보험료 등)가 반영되지 않아 감소(80 → 30)하였으나 보험비용에서 준비금 전입액이 투자비용으로 변경되어 보험이익은 증가한 반면 투자이익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큰 차이가 없어 이익원천별 손익을 IFRS17에서는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II-5〉 포괄손익계산서 비교 예시

〈IFRS4〉			〈IFRS17〉	
보험수익	80	⇒ △50	보험수익	30
1. 수입보험료	80		1. 예상보험금	15
			2. 예상직접사업비	5
			3. 위험조정 변동	2
			4. 보험계약마진 상각	8
보험비용	110		보험비용	20
1. 지급보험금	60		1. 실제보험금	15
2. 사업비	10		2. 실제직접사업비	5
3. 준비금 전입	40			
보험이익	△30	⇒ +40	보험이익	10
투자수익	60		투자수익	60
투자비용	10		투자비용	45
투자이익	50	⇒ △35	투자이익	15
영업이익	20	⇒ +5 ¹⁾	영업이익	25

주: 1) 예정이율에 기초한 준비금 전입(40)이 시장금리에 의한 이자비용(35)으로 변경되어 이익이 발생함
 자료: 금융감독원(2021a)

보험이익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비교를 위해 보험료 매년 100, 2년납, 보험기간 4년의 보장보험계약을 가정하였으며 단순화를 위해 예상과 실제 차이 및 위험조정과 할인율이 없음을 가정하였다. IFRS4에서는 보험료 납입기간(2년) 동안 보험이익이 발생하고 이후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IFRS17에서는 보험계약마진 상각액만큼 매년 일정하게 이익이 발생하여 예상과 실제가 동일하다면 보험이익이 일정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 II-6〉 보험이익 회계처리 사례 비교

IFRS4					IFRS17				
P/L	1Y	2Y	3Y	4Y	P/L	1Y	2Y	3Y	4Y
보험수익	100	100	-	-	보험수익	30	40	60	70
보험비용	30	40	40	50	(예상보험금)	-	10	30	40
(사고보험금)	-	10	30	40	(예상직접비)	20	20	20	20
(신계약비)	20	20	-	-	(보험계약마진상각) ¹⁾	10	10	10	10
(유지비)	10	10	10	10	보험비용	20	30	50	60
보험이익	70	60	△40	△50	(실제보험금)	-	10	30	40
					(실제직접비)	20	20	20	20
					- 신계약비 ²⁾	10	10	10	10
					- 유지비	10	10	10	10
					보험이익	10	10	10	10

주: 1) 보험계약마진(40) = 수입보험료(200) - 사고보험금(80) - 신계약비(40) - 유지비(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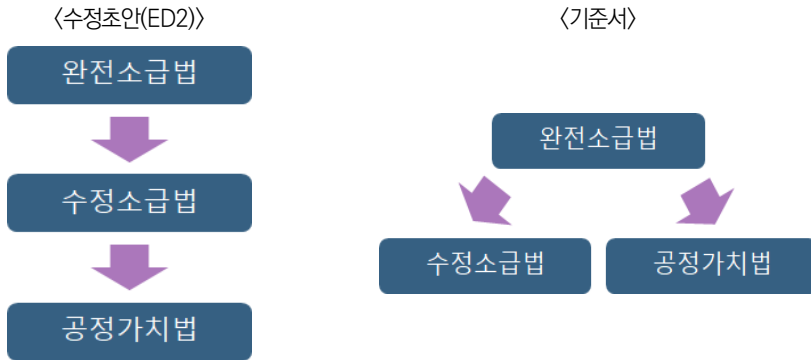
2) 계약체결시점에 40 지급하나 보험기간 동안 상각함

자료: 금융감독원(2021a)

나. 전환 시 회계처리

IFRS17 도입 시 신계약은 평가일 가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나 보유계약은 전환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 최초 적용일이 2023년 1월 1일이므로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 직전연도인 2022년 1월 1일이 된다. 전환방법으로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완전소급법은 IFRS17을 최초부터 적용해 온 것처럼 각 보험계약 집합을 식별·인식·측정해야 한다. 즉, 최초 인식시점의 자료와 가정이 모두 필요하므로 발행연도가 오래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완전소급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선택한다. 수정초안(ED2)에서는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었으나 기준서 발간 시(2017년 5월) 완전소급법 적용이 어렵다면 수정소급법과 공정가치법 중 선택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그림 II-6〉 전환 시 부채평가 적용방법



수정소급법은 완전소급법을 적용하였다면 사용되었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보를 이용하여 완전소급법에 가장 근사한 결과를 얻는 방법이다. 전환일 기준으로 보험계약집합을 식별하고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을 추정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한다. 미래 현금흐름은 실제 발생한 과거 현금흐름을 조정하여 추정한다. 할인율은 전환일 직전 최소 3년간 관찰 가능한 수익률곡선을 활용하고, 관찰가능한 수익률곡선이 없다면 최소 3년간 평균 스프레드를 산정하여 할인율을 추정한다. 위험조정 경우 전환일의 위험조정값에서 전환일 이전에 상각된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조정한다.

공정가치법은 실제 시장에서 계약이 이전되거나 사업을 결합할 때 부채 이전의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시가(Exit value)의 측정방법으로 전환일 보험계약집합의 공정 가치와 이행 현금흐름의 차이로 보험계약마진을 산출한다. 보험계약의 공정 가치는 IFRS13에 의거하여 평가¹⁷⁾하므로 IFRS17과 달리 할인율에 신용위험인 보험계약의 불이행효과를 반영하며 위험마진은 신뢰수준법이 아닌 자본비용법을 적용한다.¹⁸⁾ 현행추정부채와 미래현금흐름의 규모가 유사하고 위험마진과 위험조정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험계약마진 규모가 완전소급법 및 수정소급법에 비해 작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 부채 축소로 인해 자본은 증가할 수 있으나 기대이익인 보험계약마진이 축소되어 향후 이익이 감소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17) K-IFRS 제1117호 BC 385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음

18) 공정가치법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그림 II-7〉 공정가치법



감독회계에서는 비교가능성을 위해 소급법의 소급기간을 전환일(2022. 1. 1) 기준 직전 3~5년(2017년)으로 기간을 제한하였으며 직전 1~2년 소급법을 적용하거나 전 기간 공정가치법 적용을 위해서는 최초 적용일(2023. 1. 1)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3. 설문 조사

가. 개요

IFRS17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사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보험회사에서 IFRS17을 담당하는 실무전문가와 면담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 6개사, 손해보험회사 6개사를 대상으로 총 12개사에 대해 진행하였다. 생명보험회사는 대형 3개사, 중·소형 3개사이며 손해보험회사는 대형 4개사, 중·소형 2개사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하였다.

설문 조사는 크게 ① 조직 및 시스템 ② 이익 및 자본 ③ 영업정책 ④ 지배구조 ⑤ 향후 변화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질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조직 및 시스템은 IFRS17 부서의 기능상 구분과 형식상 구분 등을 질문하고 현재 시스템 구축단계를 확인하였다.

이익 및 자본은 IFRS4 대비 IFRS17의 수익, 이익, 자본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고 이익 증가

나 자본 감소 완화를 위해 회사가 임의적 또는 재량적으로 가정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더불어 IFRS9 도입에 따른 투자이익 관리 방안도 논의하였다.

영업정책은 영업관리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의 활용 가능성과 평가 방법을 알아보고 보장성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상품 판매 전략을 확인하였다.

지배구조는 이익 및 자본관리와 가정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 현황과 관련 위원회 준비 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IFRS17 도입에 따른 영업전략 및 관리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질문하고, 제도 개선 사항과 감독정책 및 감독문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II-7〉 설문조사 항목

분류	구분	질문
조직 및 시스템	조직 구성 시스템 구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17 관련 부서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IFRS17 시스템 구축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익 및 자본	규모 변화와 변동성 재량적 조정 여부 투자이익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대비 예상되는 수익, 이익, 자본의 규모 변화와 변동성은 어떻게 됩니까(소급법 적용기간 등)? IFRS17에서 재량적으로 손익과 자본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보험이익 말고 IFRS9 도입에 따라 투자이익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영업정책	보험영업 관리지표 보장성 위주 영업 저축성보험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보험영업 관리지표(초회보험료 등)는 어떻게 되며 향후 보험 영업 관리 지표가 어떻게 바뀔 예정입니까? CSM 또는 CSM 일부 조정하여 대체되는지, EV는 계속 유지될까요? IFRS17 시행 이후에도 현재와 유사하게 보장성(종신, 건강보험) 보험 중심의 치열한 경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연금 및 양로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판매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지배구조	이익 및 자본관리 가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까지 고려한 통합적 손익·자본관리 시스템과 거버넌스의 준비 및 역할은 강화하였습니까? 가정관리의 객관성,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거버넌스가 준비되었습니까?
향후 변화	IFRS17 시행 이후 달라질 점 제도 개선 감독정책이나 감독문화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와 비교할 때 IFRS17 시행 이후 크게 달라질 것(관리·영업 전략·문화·거버넌스 등)은 무엇입니까? 보험회사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이 있을까요? IFRS17 도입에 따른 감독 정책이나 문화가 바뀔 필요성이 있습니까?

나. 주요 내용

1) IFRS17 조직 구성

12개사 모두 IFRS17 부서의 기능은 크게 가정파트, 모델파트 그리고 결산파트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은 구분되나 가정과 모델파트는 같은 팀으로 구성하고 결산파트는 다른 팀으로 운영하는 등 회사별로 실제 조직 운영은 다양하다. 한편, 가정파트의 경우 1개사는 계리 관련 부서가 아닌 기획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 경영활동과 연계함을 알 수 있다.

담당 임원을 살펴보면 12개사 중 10개사는 계리임원이 IFRS17 부서를 관리하나 2개사는 재무임원(CFO)이 직접 관리한다. 또한, 12개사 중 4개사는 계리임원이 리스크관리임원(CRO)을 겸직하고 있어 IFRS17과 K-ICS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별로 담당 임원, 조직 구성, 파트 세분화 등이 다양하여 일관된 조직 구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IFRS17 도입에 따라 현재 IFRS4를 담당하는 부서는 IFRS17 부서에 흡수 통합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4개사는 별도 부서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IFRS17 결산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므로 제도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 II-8〉 IFRS17 부서 구성 예시



2) 시스템 구축 단계

12개사 모두 IFRS17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진행 중이다. 전환 시 회계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범운영을 진행 중으로 생명보험 회사는 주로 월별로 결산하며, 손해보험회사는 분기별 결산을 진행 중이다. 또한 회계법 인과의 사전감사를 통해 가정 및 모델링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IFRS17 기준 재무 제표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다만, 생명보험회사 대형 1개사는 절대적인 보유계약 수가 많아 물리적인 연산시간이 오래 걸려 손익 및 자본 등 결산결과를 경영에 즉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토로하였다.

3) 이익 및 자본의 변화

전환 시 보유계약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모든 회사가 소급법 적용을 선택하였다. 생명보험회사는 6개사 중 4개사가 3년 소급법을 적용하며 손해보험 회사는 6개사 중 4개사가 5년 소급법을 적용한다. 자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가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급법을 적용한 것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부채증가에 따른 자본 감소 부담이 완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고금리계약이 많은 생명보험회사 대형사들도 모두 소급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제도 변화에 따른 자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손해보험회사의 소급기간이 생명보험회사보다 길어 IFRS17 도입 시 상대적으로 자본 부담이 크지 않고 향후 이익증가율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년 소급법을 적용하는 생명보험회사 1개사는 자본부담보다는 IFRS17 시스템 개시 일정으로 인해 소급기간을 결정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표 II-8〉 전환 시 회계처리

(단위: 개)

구분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소급법	3년(4), 2년(1), 1년(1)	5년(4), 4년 (2)

4) 이익 및 자본의 재량적 조정 여부

IFRS17은 원칙론적 부채평가 방식이므로 평가 가정에 따라 이익 및 자본의 변동성이 증가한다. 이익 증가나 자본 감소 완화를 위해 회사가 임의적 또는 재량적으로 가정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12개사 회사 모두가 재량적으로 이익 및 자본 조정 여지는 크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다만 경영자 행동, 장기 유지율 등 일부 가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유인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가정의 일관성, 객관성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재량적인 조정 여부는 크지 않아 보인다.

한편, 보유계약은 어려울 수 있으나 경험통계가 부족한 신규 담보 또는 계약자 행동 옵션에서, 기존 상품들의 가정을 준용하여 CSM이 크게 계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인을 활용하여 초기 이익을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산출된 CSM을 통해 초기에 이익을 인식하고 이후 가정 악화로 CSM이 크게 감소하거나 손상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투자이익 관리

보험회사는 2023년부터는 IFRS17과 동시에 IFRS9을 시행함에 따라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변동되어 투자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9개사는 수익증권 비중 축소, 주식형에서 대출채권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 등을 통해 변동성을 관리하려고 한다. 반면 중·소형사인 2개사는 수익증권 비중 축소보다는 비중을 유지하면서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감내한다고 답변하였다. 중·소형사가 변동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전략의 차이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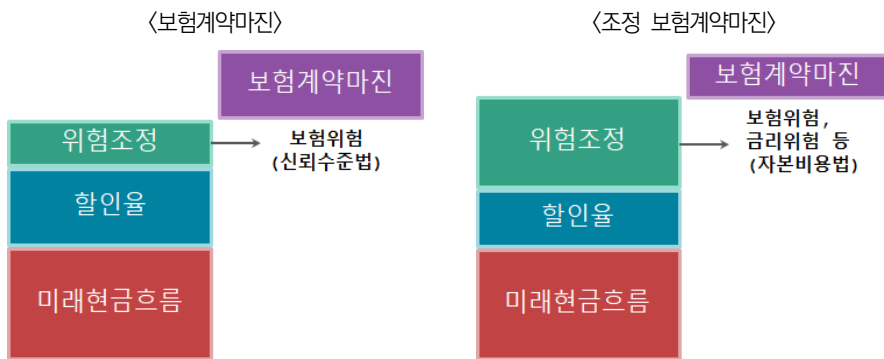
6) 보험영업 관리 지표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보험영업관리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12개사 중 11개사가 동의하였다. 손해보험회사 1개사는 CSM과 유사한 회사 자체 기준(MV)을 적용한다.

보험계약마진을 현재의 보험영업 관리 지표인 초회보험료, 유지율 등에 추가하여 사용하
나 반영 비중과 반영 방법은 회사별로 상이하다. 11개사는 현행 지표는 유지한 채 보험계
약마진을 포함하나 1개사는 보험계약마진만을 영업관리 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계약마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나 현재의 보험계약마진은 보험위험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금리위험 등 경제적 가정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보험계약마진을 조
정하는 방법으로는 할인율을 현재보다 낮게 산출하여 평가하거나 위험조정 산출 시 신뢰수
준법이 아닌 자본비용법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II-9〉 ‘보험계약마진’과 ‘조정 보험계약마진’ 비교



즉, 보험계약마진에서 금리위험 등을 조정한 ‘조정 보험계약마진(조정 CSM)’을 12개사 중
8개사가 적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보험계약마진 값 자체뿐만 아니라 미래 이익 확
보를 위해 보험계약마진 증가율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II-9〉 향후 관리지표

(단위: 개)

구분	CSM	조정 CSM	기타
보험회사 수	생명보험회사(2), 손해보험회사(1)	생명보험회사(4), 손해보험회사(4)	손해보험회사(1)

한편, 현재 보험회사의 가치평가에 활용되는 내재가치(EV) 평가를 보험계약마진으로 통
합하는 방안과 별도로 계속 산출하는 방안에 대해 11개사가 검토 중이다. 11개사 중 3개

사는 별도로 산출하는 방안을 선호하나 8개사는 '조정 CSM'과 통합하는 방안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7) 보장성 위주의 보험영업

IFRS17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보험계약마진이 높은 보장성보험 위주로 판매가 될 것으로 12개사 모두 예상한다.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특히 보험계약마진이 높은 건강보험 위주 경쟁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은 사업비차익 및 특약 등에서 이익이 주로 발생한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보험은 인보험, 물보험, 실손보험, 연금저축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보험계약마진이 높은 인보험 위주 판매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에서 손실부담계약으로 발생하는 것은 주로 질병통원담보(백내장, 갑상샘 등)이며 상해담보에서는 손실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당기손익 확보를 위해 보장성보험 위주로 시장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생명보험회사 2개사는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도 여전히 경쟁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나, 생명보험회사 1개사는 변액보험보다는 건강보험(암, 치매 등)의 보험계약마진이 높아 이러한 상품 위주로 판매를 하지만 손해보험회사와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8) 저축성보험 판매 유인

저축성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외에는 저축성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상황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관심이 있는 상품이다.

생명보험회사 3개사는 연금 및 저축 보험은 보험계약마진이 낮아 금리리스크 관리, 자산 운용, 위험률 관리 등의 목적으로 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자산듀레이션에 비해 부채듀레이션이 더 크기 때문에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종신보험 대비 부채듀레이션이 짧은 연금 및 저축 보험을 판매할 유인이 있다. 현재와 같이 금리수준이 높은 경우 일시납 저축성보험으로 현금유입을 발생시켜 금리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종신보험의 사망리스크와 연금보험의 장수리스크는 서로 위험을 상계(Natural hedge)할 수 있어 종신보험 판매가 증가한다면 연금보험도 일정 부분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명보험회사 1개사는 저축성보험은 사차 및 비차마진이 거의 없고 이차마진밖에 없는 상품으로 자본비용 고려 시 자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므로 판매유인이 감소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저축성보험은 사업비 규제(납입완료시점 환급률 100% 이상)로 인해 적정마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사업비, 공시이율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9) 이익 및 자본관리 시스템과 거버넌스 준비

12개사 모두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으며 주로 ALM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자산운용까지 고려한 통합적 손익 및 자본관리 시스템까지 구성 되어 있지 않다. 이 중 생명보험회사 1개사가 ALM 시스템에 IFRS17에 따른 자산운용 (Replicating portfolio) 방식까지 고려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0) 가정관리 시스템과 거버넌스 준비

모든 회사가 가정 산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2개사 중 11개사는 '가정관리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가정관리위원회는 회사별로 명칭은 다르나 가정 변동, 모델방법론 변경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한다. 12개사 중 11개사는 가정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1개사는 리스크관리 위원회 산하 실무협의회에서 가정 관련 사항을 논의하여 별도 가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11) IFRS17 시행 이후 달라질 점

12개사 중 10개사가 보험계약마진 중심으로 영업전략 및 관리문화 등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개사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한 회사는 이미 장기 인보험 위주로 시장이 변화하여 현재와 유사하게 매출경쟁이 심화 되는 면에서 차이가 없으며 다만 수익성 높은 상품에 대한 매출경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변화를 예상하는 회사들은 가정이 보험계약마진을 포함한 보험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손해율, 유지율, 사업비 집행률 등 경영효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기적으

로는 시가 평가 영향으로 금리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LM이 경영관리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보험계약마진 자체뿐만 아니라 보험계약마진의 성장성도 중요하므로 보험계약마진 중심의 영업을 강조하였다. 즉, 보유계약 CSM뿐만 아니라 신계약 CSM의 변화율도 중요하다. 다만, 보험계약마진 중심으로 전사적인 영업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보험계약마진으로 인해 회사 내 소통하는 용어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이익발생원천을 계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았다.

12) 제도 개선

5개사는 전환시점(2022년 초)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 보험산업에서 우려한 자본 부족 사태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나, 금리 등 경제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리 수단 확보 차원에서 계약이전, 계약 재매입, 공동재보험 등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개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도입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축소 이슈를 제기하였고, 다른 1개사는 투자손익 배분에서 투자연도별 구분방식, 계약자배당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1개사는 현재 할인율 수준이 높아 보험계약마진이 과대 계상되고 이후 할인율 하락 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축소로 인해 자본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최대관찰만기 증가 등을 통한 할인율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외 계리적 가정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손해보험회사 특별계정에서 장기보험 저축보험료 외에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13) 감독정책이나 감독문화 변화 필요성

12개사 모두 감독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정착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잦은 규정 변경은 대외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사는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컨설팅 중심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교가능성을 위해 업계 공통의 실무표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8개사가 제시하였다. 이

러한 실무표준은 일관성은 유지하되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기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1개사는 감독당국이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회사가 원칙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개사는 IFRS17 도입으로 오히려 과도한 영업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1차년도 수수료 한도만 존재하고 이후 연도의 통제는 없으며 업계 자율의 자정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업에 대한 통제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 소결

IFRS17은 기준서 작성(1997년)부터 시행(2023년)까지 25년간 진행된 초장기프로젝트로써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1단계에 해당하는 IFRS4는 각국의 회계 관행을 허용하나 2단계인 IFRS17은 보험계약 회계처리에 대한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내 보험산업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2013년부터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TF를 구성하여 10년에 걸쳐 준비하였다. 201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을 시작으로 2015년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고 2017년 「민·관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에서 제도 연착륙 방안 등을 도입한 후 2018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에서 보험업법 등 법규 개정을 통해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는 IFRS17은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와 수익인식 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되는 것이 IFRS4와의 차이점이다.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해 평가시점에 가정을 재산출하며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으로 구분한다. 이중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에 대한 미실현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며 향후 점진적으로 이익으로 전환된다. 보험계약에 대한 미래 이익을 일단 보험부채로 평가하고 이후 일정기준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한다.

IFRS17 도입 시 신계약은 평가일 가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나 보유계약은 전환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 최초 적용일이 2023년 1월 1일이므로 전환일은 최초 적용

일 직전연도인 2022년 1월 1일이 된다. 전환방법으로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 소급법에 비해 부채가 축소되어 자본은 증가할 수 있으나 기대 이익인 보험계약마진이 축소되어 향후 이익이 감소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IFRS17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사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내용은 크게 ① 조직 및 시스템 ② 이익 및 자본 ③ 영업정책 ④ 지배구조 ⑤ 향후 변화로 구분된다.

조직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IFRS17 부서의 기능은 크게 가정파트, 모델파트 그리고 결산파트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은 구분되나 가정과 모델파트는 같은 팀으로 구성하고 결산파트는 다른 팀으로 운영하는 등 회사별로 실제 조직 운영은 다양하다.

이익 및 자본 변화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생명보험회사는 6개사 중 4개사가 3년 소급법, 손해보험회사는 6개사 중 4개사가 5년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 회사가 제도 변화에 따른 자본부담은 크지 않고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영업 관리지표로 초회보험료뿐만 아니라 보험계약마진을 추가하여 사용하나 반영비중과 반영방법은 회사별로 상이하다. 12개사 중 8개사는 보험계약마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금리위험 등을 반영한 '조정 보험계약마진'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위험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본비용법 등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영업정책은 보험계약마진이 높은 보장성보험 위주로 판매가 될 것이며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보험계약마진이 더 높은 건강보험 위주의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계약마진이 낮은 연금 및 저축보험의 판매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 및 가정관리에 대한 지배구조는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가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미 확립되어 있으며 ALM 시스템 및 가정관리시스템도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계약마진 중심으로 영업전략, 관리문화 등이 변화될 것이며 보험계약마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 유지율, 사업비율 등 경영효율지표가 관리의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계약마진 중심으로 전사적인 영업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감독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정착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컨설팅 중심의 검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업계 공통의 실무표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2개사 중 8개사가 제안하였다. 한편 2개사는 IFRS17 도입으로 오히려 과도한 영업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차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차이 등 회사별 특징을 파악하고 싶었으나 ‘전환 시 회계처리 방법’ 정도를 제외하고는 차이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10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관리지표가 CSM으로 변화하고 이로 인해 생명·손해보험회사 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상품별 차이가 사라져 영업전략부터 자본 관리까지 모든 부분이 유사하게 변화하였다. 즉, IFRS17로 인해 회사 간 차별성이 사라지고 CSM 확보를 위한 영업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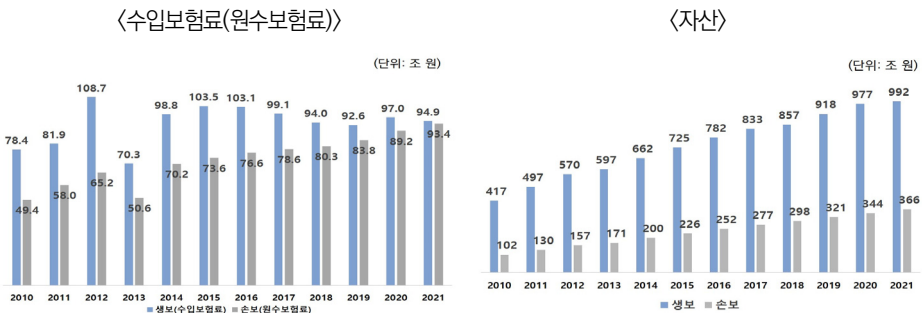
주요 경영지표 변화

1. 개요

본장에서는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 주요 경영지표의 크기와 변동성이 어떻게 변할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보험회사가 주요 경영지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점검한다. 먼저 IFRS4 기준 경영지표인 수익, 이익, 자본 현황을 살펴본 후 IFRS17 도입에 따른 변화를 예상한다.

IFRS4의 수익은 현금주의에 기반을 두므로 보험료가 수익이 된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합한 전체 보험료는 2010년 128조 원에서 2021년 188조 원으로 50% 가까이 성장하였다. 보험료의 성장원인을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퇴직연금 제외)는 감소하고 있어 손해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회사 자산 대비 생명보험회사 자산 비중이 2010년 4.1배에서 2021년 2.7배로 축소되었다. 한편,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합한 전체 보험회사 자산은 2021년 1,359조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림 Ⅲ-1〉 보험료 및 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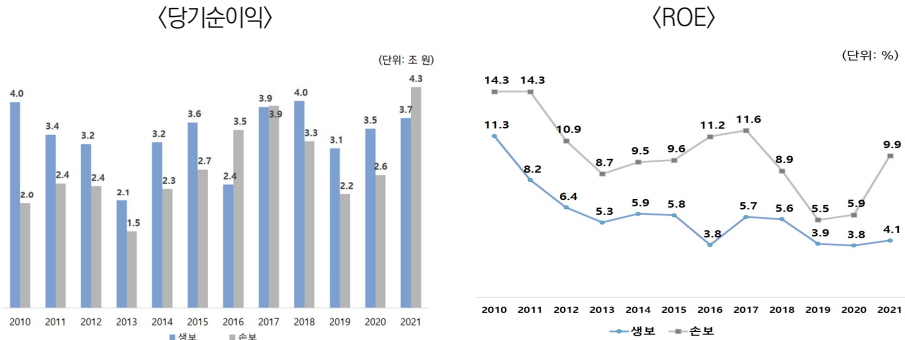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당기순이익은 매년 변동하나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본 대비 당기순

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ROE도 2019년부터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손해보험회사의 증가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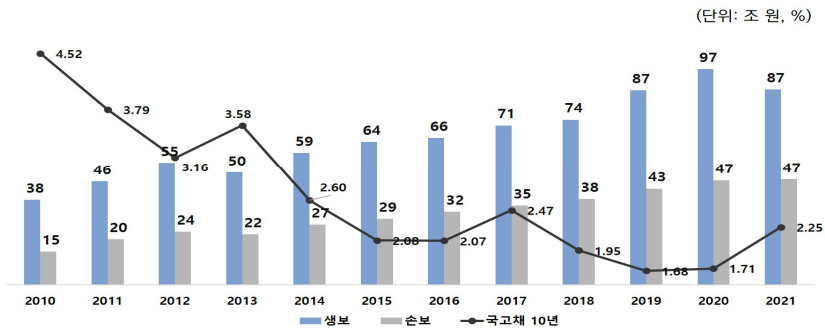
〈그림 III-2〉 당기순이익과 ROE 추이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합한 전체 자본은 2010년 53조 원에서 2021년 134조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은 2010년 38조 원에서 2020년 97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인해 2021년 87조 원으로 감소하였다.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은 2010년 15조 원에서 2020년과 2021년 47조 원으로 동일하여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즉,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금리에 좀 더 민감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 자본 추이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2.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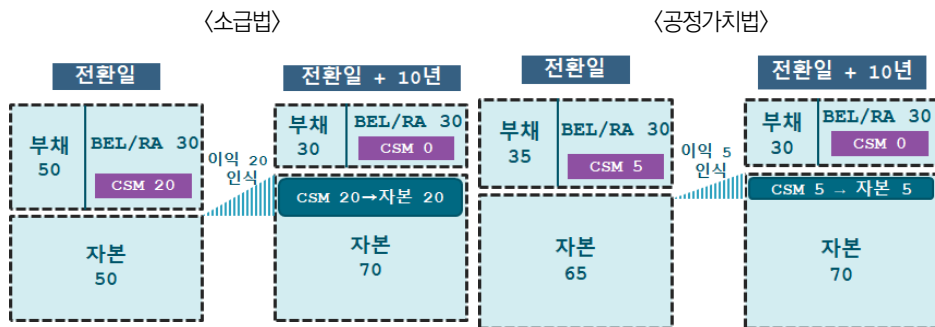
IFRS4에서 보험수익은 보험회사에 현금으로 유입된 수입보험료이지만, IFRS17에서 보험수익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잔여보장부채 감소분으로 인식되며 투자요소(저축보험료 등)를 제외한다. 이로 인해 IFRS17 시행 시 보험수익의 규모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수익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나, 투자비용은 IFRS4와 달리 부채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수익의 구성요소 중 보험계약마진 상각은 안정적이지만, 예상보험금과 예상사업비는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므로 불안정한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수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을 정교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회사의 수익규모는 상품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전환 시 적용하는 전환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전환방법은 수익뿐만 아니라 자본 규모에도 영향을 준다. 감독회계에서 소급법은 전환일 전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소급기간 외의 계약은 공정가치법을 적용한다.

공정가치법은 소급법에 비해 보험계약마진(CSM)이 작게 산출되어 부채평가액 증가가 완화된다. 그러므로 전환 시 보험회사가 보유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많이 적용할수록 향후 인식되는 이익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전환 시점의 자본은 증가한다.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보험회사라면 소급법 적용 기간을 축소하여 공정가치법을 적용하겠지만, 자본에 여유가 있는 보험회사라면 최대 5년까지 소급법을 적용하여 전환 이후 인식되는 이익의 규모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림 III-4〉 소급법과 공정가치법 비교



자료: 금융감독원(2021b)

IFRS17 도입 시 회사별 실제 보험계약마진 규모는 일부 상장 보험회사의 실적발표(2022년 3월 말)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 생명은 공정가치법 적용 시 보험계약마진이 5조 원이 된다. 1년 소급법을 적용할 경우 신계약 CSM 3조 원을 포함하여 총 CSM은 10~10.5조 원 수준이다. 연간 상각률을 10%로 예상한다면 연간 보험이익은 최소 1조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B 생명은 공정가치법 적용 시 CSM이 5조 원이며, 3년 소급법 적용 시 신계약 CSM 1.8조 원 포함하여 총 9조 원 가량의 CSM이 추정된다. 따라서 CSM을 매년 9%씩 상각 시 약 8,000억 원의 보험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C 생명은 공정가치법 적용 시 CSM이 9,900억 원이 되고 3년 소급법 적용하면 CSM이 1.8~1.9조 원이며 연간 신계약 CSM을 6,000억 원으로 추정한다. 이를 통해 보면 3년 소급 적용 시 현재의 자본 및 이익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3년 소급법을 적용할 개연성이 높다.

〈표 Ⅲ-1〉 전환일 보험계약마진 추정

구분		A 생명	B 생명	C 생명
공정가치법		5조 원	5조 원	0.99조 원
소급법	소급기간 및 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소급법 • 전체 마진 10~10.5조 원 • 신계약 마진 3조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소급법 • 전체 마진 9조 원 • 신계약 마진 1.8조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소급법 • 전체 마진 1.8~1.9조 원 • 신계약 마진 0.6조 원
	상각률	10%	9%	-
	연간 보험이익	1조 원	0.8조 원	현재와 유사

자료: 신한금융투자(2022)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일부 보험회사에 제한되긴 하지만 소급법이 공정가치법에 비해 보험계약마진이 증가함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가치법과 소급법 중 보험회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제도 변경에 따른 자본 감소 부담이 크지 않다면 보험계약마진이 좀 더 높은 소급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회사는 자본 부담 외에 시스템 구축 상태, 소급기간에 따른 산출시간 증가 등의 이유로 소급기간 축소 및 공정가치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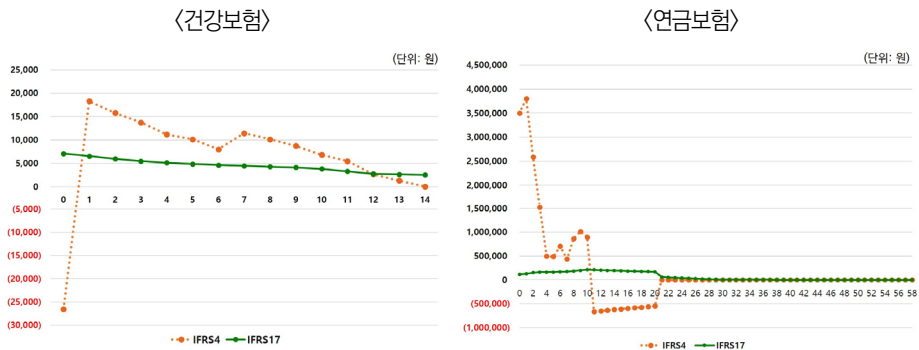
가. 개요

IFRS17에서는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이 손익계산서에서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IFRS4와 차이가 있다. 투자이익은 자산투자수익에서 부채이자비용 등 투자비용을 차감하면 산출된다. 하지만 보험이익은 다양한 가정에 의해 산출되는 현금흐름에 의존하므로 보험이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보험이익 규모는 보험계약마진이 상각되는 부분(상품마진) 이외에도 예상 보험금·사업비와 실제 보험금·사업비의 차이(예측마진), 위험조정 변동(위험마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결국 보험회사의 이익은 현금흐름 추정 능력과 비용 관리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IFRS4에서는 보험기간에 따라 이익과 손실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낸다. IFRS17에서는 보험기간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보험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보험기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그림 III-5〉 제도별·상품별 보험이익 비교



자료: 한승엽(2021)

나. 보험상품별 이익 변동성

IFRS17에서 나타나는 보험이익의 변동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승엽(2021)이 제시한 국내의 대표적 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상품별 계

약 가정 및 계리적 가정은 한승엽(2021)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할인율 가정과 상품별 마진을 비교를 위한 평가기준 및 민감도는 직접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1) 상품 가정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는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강보험은 대표상품인 암보험을 적용하였다.

〈표 III-2〉 상품별 계약 가정

종신보험	건강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연령: 40세 • 납입기간: 20년 • 보험만기: 100세 • 가입금액: 1억 원 • 월납보험료 : 243,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연령: 40세 • 납입기간: 15년 • 보험만기: 55세 • 가입금액: 1천만 원 • 월납보험료 : 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연령: 40세 • 납입기간: 5년 • 보험만기: 50세 • 보험금(사망 시) : 1억 원 • 월납보험료 : 5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연령: 40세 • 납입기간: 10년 • 연금개시: 60세 • 연금지급보증기간: 20년 • 보험금(사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개시 전: 5백만 원 -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액 • 월납보험료 : 500,000원

자료: 한승엽(2021)

각 상품별로 적용하는 사업비 가정과 해지율 가정은 〈표 III-3, 4〉와 같다. 신계약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사업비 비율이 가장 높고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순서이다. 따라서 사업비 비중이 높은 보장성보험,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이 다른 보험에 비해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사업비 규제¹⁹⁾로 인해 보장성보험보다 사업비 비중을 높게 가져가기 어려워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 반면 보장성보험은 사업비 규제가 없어 보험 상품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익성 높은 유사한 상품을 모든 회사가 판매하게 되면 시장 경쟁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

19)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에 의거하여 일반연금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납입완료 시점(7년납 이상은 7년, 일시납 15개월)에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하고 있음

〈표 Ⅲ-3〉 상품별 사업비 가정

(단위: %)

구분	종신보험	건강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
신계약비(α_1)	450.0	1,000.0	100.0	300.0
신계약비 분급(α_2)	5.0	5.0	1.5	2.5
납입 중 유지비(β_1)	10.0	10.0	5.0	8.0
납입 후 유지비(β_2)	1.0	1.0	0.5	1.0
수금비(γ)	2.0	2.0	2.0	2.0

자료: 한승엽(2021)

경과기간별 해지율을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이 유사하고, 저축성보험인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해지율을 나타내고 있어 보장성보험의 계약 유지율이 저축성보험에 비해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에서 보험계약 유지에 따른 이익이 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Ⅲ-4〉 상품별 해지율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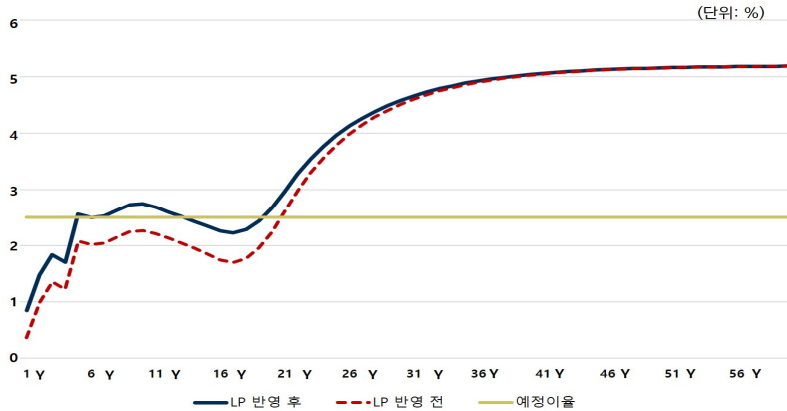
(단위: %)

경과기간	종신보험	건강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
1년	10	9	10	15
2년	13	11	15	22
3년	12	10	17	15
4년	10	8	20	12
5년	9	6	15	10
6년	8	6	10	10
7년	8	5	10	8
8년	7	5	6	8
9년	6	4	4	6
10년	5	4	4	6

자료: 한승엽(2021)

할인율은 2020년 말 국고채 수익률을 이용하였으며 유동성 프리미엄(LP) 48.1bp, 최종관찰만기(LLP) 20년, 장기선도금리(LTFR) 5.2%, 수렴시점 60년을 적용하였다.

〈그림 III-6〉 할인율 곡선(선도금리)



자료: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지급여력제도 및 감독회계”

IFRS17에서 경제적 가정은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값을 사용하지만 계리적 가정은 회사별로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가정은 실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가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결과 자체보다는 대략적인 크기 비교와 가정 변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상품별 마진을 비교

상품별로 보험료가 상이하므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으로 보험계약마진을 수입보험료 현가로 나눈 ‘보험계약마진율(보험계약마진/수입보험료 현가)’을 이용한다. 보험계약마진율을 이용하여 상품별 이익 차이를 살펴보고 가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률 및 해지율 가정과 할인율 변화에 따른 마진율을 분석한다.

가) 예정이율과 무위험수익률 비교

먼저 무위험수익률을 적용한 경우와 예정이율(2.5%)을 적용한 경우의 보험계약마진율 차이를 비교하였다. 예정이율을 적용한 보험계약마진율이 무위험수익률을 적용한 경우보다 보험계약마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위험수익률이 장기로 갈수록 예정이율보다 높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보험계약마진이 상대적으로 과대 계상된 것에

기인한다. 특히 보험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인 종신 및 연금보험에서 무위험수익률과 예정이율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높은 할인율 수준에 의한 보험계약마진의 과대 계상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종신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마진율은 저축보험,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앞서 사업비 가정 및 해지율 가정을 보면 보장성보험의 사업비가 저축성보험에 비해 높고 해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 보장성보험의 마진율이 높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수익확보를 위해 보장성보험 위주로 상품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갱신, 재계약 등 가정이 반영되어 보험기간이 증가한다면 본 연구에서 산출한 마진율보다 낮게 산출될 수 있다.

〈표 III-5〉 상품별 보험계약마진율 비교

(단위: %)

구분	종신	건강	저축	연금
무위험수익률	9.7	19.1	1.2	5.5
예정이율	4.0	18.8	1.2	1.9

나) 사망률 민감도 비교

먼저 사망률을 현행 추정 값에서 5% 및 10% 증가 또는 감소시켜 보험계약마진율을 산출하였다. 연금보험의 경우 종신보험과 비교를 위해 연금개시 전 사망률을 적용하였다.

사망률이 감소할수록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계약마진율이 증가하며,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계약마진율은 변화가 거의 없다. 보장성보험이 사망률 가정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표 III-6〉 사망률 변화 시 보험계약마진율 비교

(단위: %)

구분	종신	건강	저축	연금
사망률 10% 증가	9.1	15.1	1.2	5.6
사망률 5% 증가	9.4	17.1	1.2	5.6
사망률 기본 가정	9.7	19.1	1.2	5.5
사망률 5% 감소	10.0	21.0	1.2	5.5
사망률 10% 감소	10.2	23.0	1.2	5.5

다) 해지율 민감도 비교

해지율도 사망률과 유사하게 현행 추정 값에서 5% 및 10% 증가 또는 감소시켜 보험계약 마진율을 산출하였다. 해지율은 보험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영향을 주로 미치며 해지율이 감소할수록 보험계약마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험기간이 짧은 건강보험과 저축보험은 해지율 감소에 따른 보험계약마진율 변동 폭이 크지 않다.

〈표 III-7〉 해지율 변화 시 보험계약마진율 비교

(단위: %)

구분	종신	건강	저축	연금
해지율 10% 증가	8.6	18.8	1.1	5.0
해지율 5% 증가	9.1	18.9	1.2	5.3
해지율 기본 가정	9.7	19.1	1.2	5.5
해지율 5% 감소	10.2	19.2	1.2	5.8
해지율 10% 감소	10.8	19.3	1.2	6.1

라) 할인율 민감도 비교

할인율에 의한 효과는 최대관찰만기까지의 국고채 수익률 변화와 장기선도금리의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국고채 수익률은 만기 20년까지 관찰 값에서 10bp 및 20bp를 증가 또는 감소시켜 보험계약마진율을 산출하였다.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경우 국고채 수익률이 증가할수록 보험계약마진율도 증가하나 건강 및 저축보험은 국고채 수익률에 따른 보험계약마진율의 변화가 크지 않다.

〈표 III-8〉 국고채 수익률 변화 시 보험계약마진율 비교

(단위: %)

구분	종신	건강	저축	연금
수익률 20bp 증가	10.5	19.0	1.2	5.7
수익률 10bp 증가	10.1	19.0	1.2	5.6
수익률 기본 가정	9.7	19.1	1.2	5.5
수익률 10bp 감소	9.2	19.1	1.2	5.4
수익률 20bp 감소	8.8	19.1	1.1	5.3

장기선도금리는 할인율 곡선에서 만기 60년에 해당하는 값으로 관찰기간 이후 할인율 수준은 장기선도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감독회계²⁰⁾에서 LTFR은 연간 최대 15bp씩 변경할 수 있어 현행 값(5.2%)에서 15bp 및 30bp를 증가 또는 감소시켜 보험계약마진을 산출하였다. 장기선도금리가 하락할수록 할인율이 낮아지므로 보험계약마진은 감소하게 된다. 보험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 장기선도금리에 따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험기간이 짧은 건강보험 및 저축보험은 영향이 거의 없다.

〈표 III-9〉 장기선도금리 변화 시 보험계약마진율 비교

(단위: %)

구분	종신	건강	저축	연금
LTFR 30bp 증가	10.2	19.1	1.2	5.9
LTFR 15bp 증가	10.0	19.1	1.2	5.7
LTFR 기본 가정	9.7	19.1	1.2	5.5
LTFR 15bp 감소	9.2	19.1	1.2	5.2
LTFR 30bp 감소	8.9	19.1	1.2	5.0

산출결과를 보면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에 비해 보험계약마진율이 높아 설문조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IFRS17 도입 이후 보장성보험 위주의 판매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길어 사망률, 해지율, 할인율 등의 가정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위주 상품 판매 전략은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변동성도 증가시키므로 안정적인 가정 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4. 자본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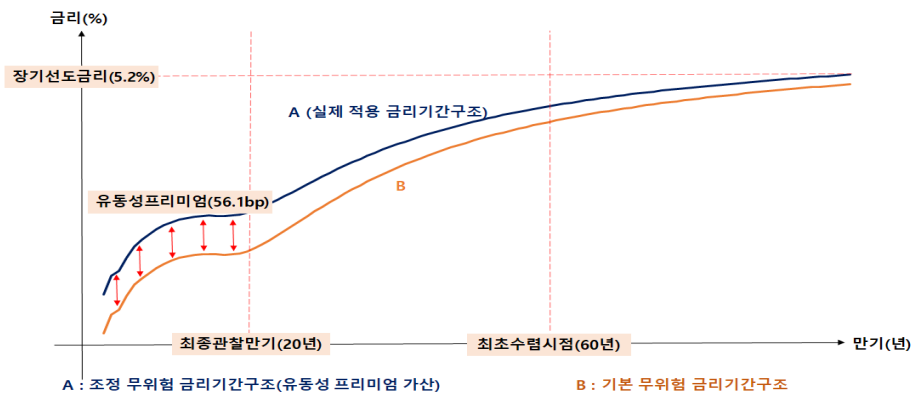
IFRS17 도입으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저금리로 인해 낮은 할인율 적용 시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인한 자본 감소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 적기시정조치 적용 가능성, 상장회

20)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사의 경우 상장 폐지 등의 이슈가 제기되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적 평가방법 개선, 할인율 곡선 변경 등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IFRS17 도입이 보험회사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2014년부터 거의 매년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IFRS17에 의한 평가결과는 많은 요인이 작용하지만 그 중 할인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감독회계에서는 회사 간 비교가능성 목적으로 감독당국이 직접적으로 할인율을 제시²¹⁾한다. 이러한 할인율 산출요소로는 무위험수익률, 최종관찰만기, 장기선도금리, 유동성 프리미엄 등이 있다. 이 중 장기선도금리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값 이후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III-7〉 할인율 곡선 예시(현물이자율)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저금리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IFRS17 평가 시 부채 증가로 인한 보험회사 자본 감소가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를 4.2%에서 4.5%로, 다시 4.5%에서 5.2%로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부채 증가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동성 프리미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보험회사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규제기준 검토 및 연착륙 지원방안²²⁾이었다.

21)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지급여력제도 및 감독회계” 중 ‘감독원장 제공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음

2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6. 27), “원활한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개선을 위해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이후 2020년 말부터 금리가 상승하여 할인율에 대한 현실화 문제가 제기되어 장기선도금리를 5.2%에서 4.9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3년에는 4.80%를 적용²³⁾한다.

〈표 III-10〉 할인율 모수

평가일	무위험수익률	최대관찰만기	장기선도금리	유동성프리미엄	국고 10년
2013. 12(QIS1)	국고채	30년	4.2%	0.196%	3.583%
2014. 12(QIS2)		20년	4.2%	0.072~0.15%	2.598%
2017. 12(QIS3)			4.5%	0.40%	2.469%
2018. 12(QIS4)			5.2%	0.585%	1.948%
2019. 12(QIS5)			5.2%	0.570%	1.683%
2020. 12(QIS6)			5.2%	0.602%	1.713%
2021. 12(QIS7)			4.95%	0.621%	2.250%

자료: 보험개발원(2018);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지급여력제도 및 감독회계”

한편, 할인율을 통한 부채 증가 완화는 국내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며 유럽 지급여력제 도입 Solvency II 도입 시에도 할인율에 대한 다양한 완화 방안을 적용하였다.

할인율 폭선에서 관찰기간 이후 장기선도금리로 수렴시키는 방법,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응되는 변동성 조정(경기대응 프리미엄), 매칭 조정 방법을 허용하여 실제 무위험수익률 보다 높은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독일 녹색당의 재정 및 경제정책 대변인인 Sven Geigold는 “로비의 향연(a Lobby Festival)” 이라고 불렀다. 그의 관점에서 매칭 조정(Matching premium)은 영국과 스페인의 보험회사를 위한 방안이며, 경기대응프리미엄(Counter-cyclical premium)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보험회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장기선도금리 적용방안(New extrapolation)은 특히 독일 생명보험회사의 환영을 받았다. 그는 이러한 방안은 소비자보호, 금융안정성 그리고 납세자의 일반적 이익보다 금융 로비의 기득권이 지배한 사례임을 밝혔다.²⁴⁾

한편 대만은 부채시가평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T-ICS)를 2026년에 도입할

23) 금융감독원(2022b)

24) Karel Van Hulle(2019), p. 85

예정으로 Field Test가 진행 중이다. 2019년 Field Test 시 할인율은 부채 부리이율 4% 이상과 이하를 구분하여 금리를 조정하였다. 4% 이상인 경우 무위험수익률 곡선에 100bp를 추가하였고 4% 미만에는 35bp를 추가 적용하였다. 금리 수준에 따라 추가 금리를 다르게 적용한 것은 국내와 유사하게 고금리 계약에 대한 부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²⁵⁾

〈표 Ⅲ-11〉 할인율 산출기준(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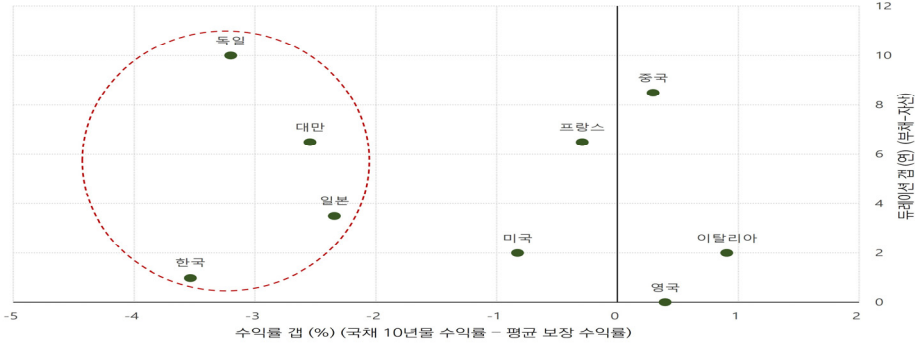
구분		대만 달러	미국 달러	호주 달러	EU 유로	중국 위안
시장 관찰 금리		국채	국채	국채	스왑	국채
CRA(bps)		0	0	0	10	0
LLP(년)		10	30	30	20	10
CP(년)		60	60	60	60	60
UFR(%)		4.2				
금리조정 방식	A	무위험수익률 곡선 전체에 걸쳐 적용				
	B	시장관찰금리 구간(Segment 1)에 금리 조정 후 Smith-Wilson 방식으로 외삽				
금리조정 크기	A	부채부리이율 4% 이상	상한: 100bps			
		부채부리이율 4% 미만	상한: 35bps			
	B	부채부리이율 4% 이상	상한: 100bps		UFR 10bps 가산	
		부채부리이율 4% 미만	상한: 35bps			

자료: 노건엽·황인창(2019)

한국, 독일, 대만 등 각국 금융당국의 할인율을 통한 부채 부담 완화 노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과 이자역마진에 의한 것이다.

25) 노건엽·황인창(2019)

〈그림 III-8〉 국가별 듀레이션 갭과 이자역마진 비교



자료: IMF(2019)

이러한 부채 완화노력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보험회사의 단계별 대응 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²⁶⁾

- ① 현실부정: 정상수준의 금리로 다시 회복되길 기다린다. 기존 계약자와 신규 계약자에게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첫 1~2년 동안 지속된다.
- ② 에버그린: 1년이 지난 후 보증이율 수준을 낮추고 성장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기존 보유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상쇄시키고자 한다.
- ③ 카지노 방문: 자산부채에 대해 2가지 방안으로 전략을 변화시킨다.
 -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한다. 즉 고금리 대출, 해외 자산, 유동성이 낮은 실물 자산(예: 주식, 헤지 펀드 등), 신용등급이 낮은 자산 등에 투자한다.
 - 자산듀레이션을 가능한 한 최대로 늘리되 평균 보증이율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자산에 투자한다. 장기 국채 및 장기 회사채, 장기 인프라 투자 및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한 투자로 나선다.
- ④ 외양간 고치기 : 대략 3년 또는 4년쯤에는 ‘희망’을 갖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져서 구조적 리스크가 적은 상품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 보증이율을 재설정하는 상품 등 구조적으로 금리리스크가 적은 상품을 도입한다.
 - 금리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상품 믹스를 변경한다(변액보험, 사망, 장기간병, 건

26) Wilson, Thomas(2017)의 보험개발원 번역본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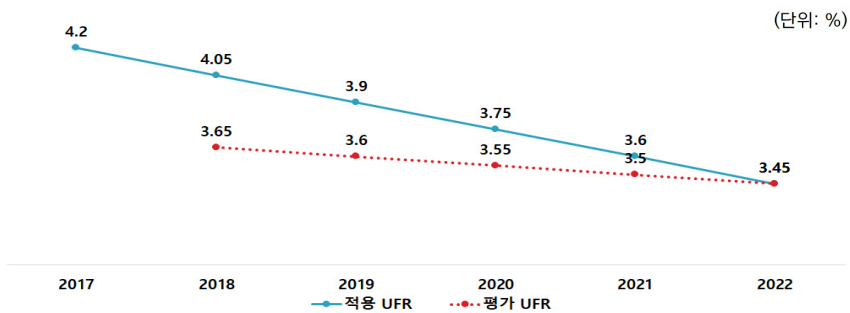
강특약 등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

- 보험계약대출 및 기존계약 해지 장려, 신세대 상품으로 전환을 장려한다(계약전환은 계약자 보호 및 불안전 판매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다).
- ⑤ 허리띠 졸라매기: 4단계와 거의 같은 시기에 투자마진 축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판매비 및 유지비 관리에 집중한다.
- ⑥ 로비: 저금리 문제가 지속될 것이 분명해 짐에 따라 규제당국 또는 회계당국에 적용유예를 위한 로비를 한다. 예를 들어 준비금 부리이율의 변경 등이 있다.
- ⑦ 최종: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건전한 회사와 합병하거나 또는 파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단계를 고려하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 제도 도입 이후에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EIOPA는 2016년 Solvency II 도입 후 장기선도금리에 대한 공개협약²⁷⁾을 발표하고 장기선도금리를 2018년부터 매년 15bp씩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2017년 4.2%였던 장기선도금리는 2022년 3.45%까지 감소하여 평가 값과 적용 값이 동일하게 되었다.

〈그림 III-9〉 Solvency II 적용 장기선도금리(UFR) 추이



자료: 노건엽(2021)

또한 EIOPA는 2019년 Solvency II 개정 공개협약²⁸⁾을 발표하고 최종관찰만기를 포함

27) EIOPA(2016)

28) EIOPA(2019)

한 위험마진, 변동성 조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최종관찰만기의 경우 20년을 적용하는 것이 부채의 과소추정 및 시장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관찰만기 설정방식 및 보간법을 변경²⁹⁾하였다.

이처럼 제도 도입 전에는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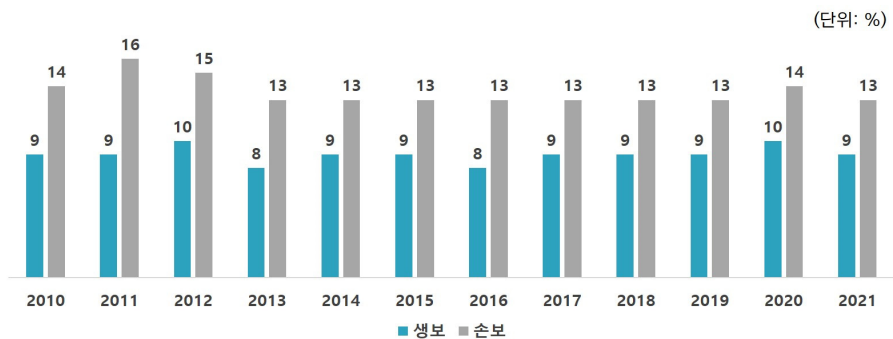
한편, 국내도 할인율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5.2%로 적용된 장기선도금리는 계약자 보호 및 부채과소추정 방지를 위해 2022년 4.95%, 2023년 4.80%³⁰⁾로 매년 15bp씩 감소시킬 예정이다.

나. 자본 현황

제도 대응을 위해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본을 꾸준히 확충하여 2010년 대비 2021년 생명보험회사는 2.3배(38조 원 → 87조 원), 손해보험회사는 3.2배(15조 원 → 47조 원) 증가하였다(〈그림 III-3〉 참조).

이러한 자본 증가에 따라 총자산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명보험회사는 9%, 손해보험회사는 13%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그림 III-10〉 총자산 대비 자본 비율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29) 만기 20년부터 만기 50년까지 시장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만기 20년보다는 낮고 만기 30년보다 높은 할인율 곡선이 산출됨

30) 금융감독원(2022b)

하지만, 자본의 세부 항목별 금액 및 비중을 보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2021년 말 기준 생명보험회사 자본은 87.5조 원, 손해보험회사는 47.1조 원으로 손해보험회사 자본이 생명보험회사 자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나 이익잉여금은 생명보험회사 37.3조 원, 손해보험회사 33.2조 원으로 이익잉여금은 4조 원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표 III-12〉 자본 세부 항목 금액 및 비중(2021년 말)

(단위: 조 원)

구분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0	2021	2010	2021
자본금	8.6 (23%)	12.4 (14%)	2.7 (18%)	3.5 (7%)
자본잉여금	3.3 (9%)	9.9 (11%)	1.5 (10%)	3.5 (7%)
신종자본증권	- (-)	4.7 (5%)	- (-)	1.2 (3%)
이익잉여금	16.0 (42%)	37.3 (43%)	7.9 (54%)	33.2 (71%)
자본조정	0.0 (0%)	△ 3.6 (△4%)	△0.6 (△4%)	△ 2.2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0 (26%)	27.1 (31%)	3.0 (21%)	8.0 (17%)
합계	37.9 (100%)	87.5 (100%)	14.5 (100%)	47.1(10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손해보험회사 자본의 대부분(71%)은 이익잉여금이 차지하고 있으나 생명보험회사 자본은 이익잉여금 다음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27.1조 원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주식 또는 채권평가손익이 반영되므로 자본이 외부환경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자산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비중이 높아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시 자본의 변동성이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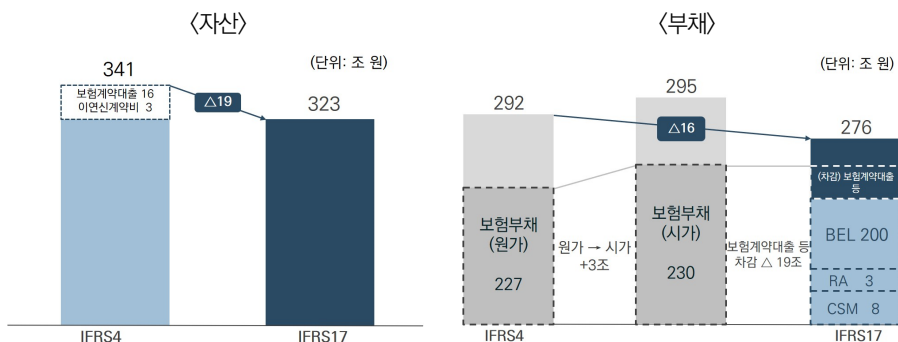
다. 전환 시 자본 규모

보험회사의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할인율 폭선 적용과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보

협회사의 부채 증가 부담은 매우 완화된 상태이다. 전환 시 보험회사의 자본 규모는 전환 방법의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본 부담이 컸던 생명보험회사들도 1~3년 소급법 적용을 검토할 정도로 자본 부담이 완화되었다.

삼성생명(2022)은 최근 투자자 대상 발표(2022. 12. 2)³¹⁾에서 1년 소급법을 선택하였음을 밝혔다. 즉, 2021년 계약에 대해 소급법을 적용하였고 2020년 이전 계약은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다. 보험부채는 3조 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은 법인세 효과 등으로 인해 2조 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보유계약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은 8조 원이다. 자산은 보험계약대출(16조 원), 이연신계약비(3조 원)이 보험부채의 차감계정으로 변경되어 19조 원 감소한다.

〈그림 III-11〉 재무상태표 주요 변경사항



자료: 삼성생명(2022)

삼성생명이 고금리 계약이 많은 대형 생명보험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소급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이 공정가치법보다는 소급법을 선호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자본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자본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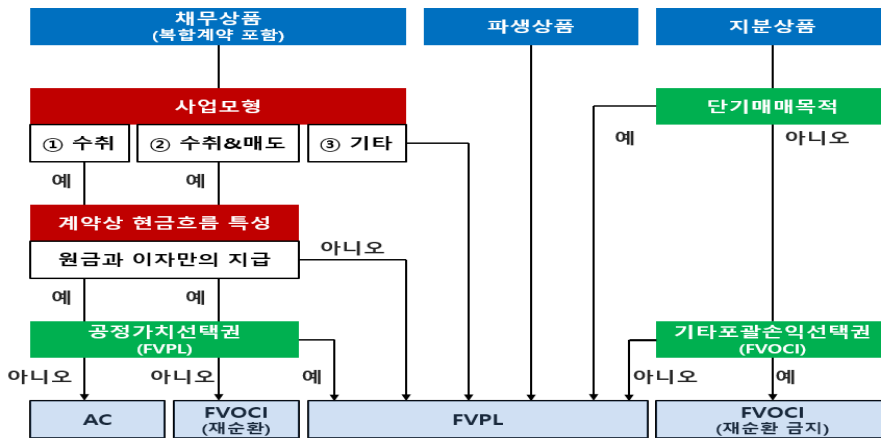
IFRS17 체계에서 보험회사의 자본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할 수 있다. 외부 변수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 변화에 의한 할인율 곡선의 변화이며, 회계적 요인으로

31) 삼성생명(2022)

는 IFRS9 기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방식을 들 수 있다. IFRS9에서 금융자산은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특징과 사업모형으로 인해 상각후원가(AC),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IFRS9은 채무상품을 계약상 현금흐름과 사업모형에 따라 엄격하게 분류하고 측정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원금잔액의 이자 지급으로만 이루어졌는지(SPPI)가 중요하다. SPPI를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은 FVPL로만 구분 및 측정가능하다. 사업모형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기업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바탕으로 실질적 평가를 통해 분류해야 한다. 사업모형은 크게 세 가지(현금흐름 수취,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둘 다 추구, 기타)로 분류한다.

〈그림 III-12〉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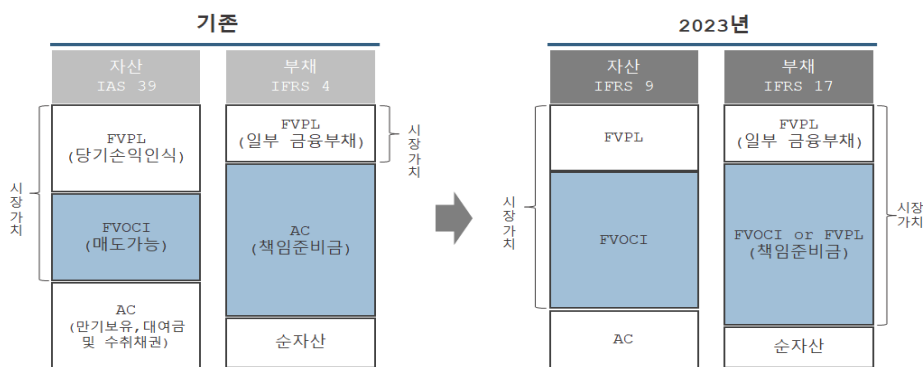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16)

현행 회계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되는 매도가능증권 중 적지 않은 비중이 IFRS9에서는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된다. 현행 매도가능증권 중 현금흐름이 복잡한 옵션부채권이나 수익증권은 IFRS9에서 대부분 FVPL로 측정되어야 하므로 IFRS9 적용 시 보험회사의 FVPL 자산의 비중이 증가한다. 2020년 말 기준 5개 금융지주 계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현행 회계기준으로는 FVPL 자산 비중이 2~10%이나 IFRS9 기준으로는 FVPL 자산 비중이 16~26%로 증가한다.³²⁾

32) 송윤상(2021)

IFRS17에서 보험부채는 포트폴리오별로 FVOCI나 FVPL로 분류할 수 있지만, FVPL로 분류할 경우 이익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FVPL로 분류된 보험부채 가치는 주로 금리에 영향을 받지만, FVPL로 분류된 자산 중 상당 부분은 금리 이외에도 주가나 다른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익변동성과 자본변동성을 동시에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FVOCI로 분류하되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부채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FVOCI 자산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³³⁾

〈그림 III-13〉 회계제도 변화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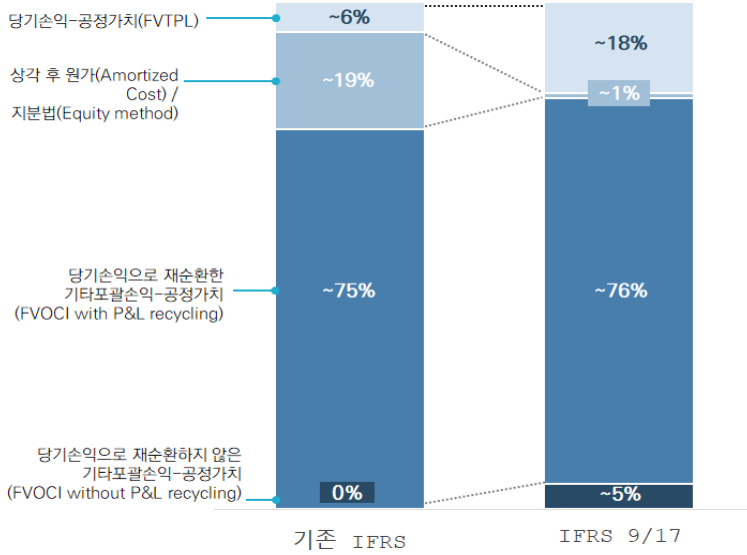


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알리안츠³⁴⁾는 IFRS9 도입에 따라 AC가 감소하고 FVPL과 재순환 금지되는 지분상품 FVOCI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부채의 변동과 상계되지 않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어 이익변동성과 자본변동성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3) 모든 보험부채가 FVOCI로 분류된 상황에서 FVOCI 자산 비중 및 듀레이션 갭에 따른 구체적 자본변동성 변화는 조영현·이혜은(2018)을 참조하기 바람

34) Allianz(2022)

〈그림 Ⅲ-14〉 자산 분류 변화(독일 알리안츠 그룹)



자료: Allianz(2022)

5. 소결

가. 수익

IFRS4에서 보험수익은 보험회사에 현금으로 유입된 수입보험료이지만, IFRS17에서 보험수익은 저축보험료 등 투자요소가 제외된다. 이로 인해 IFRS17 시행 시 보험수익의 규모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수익규모는 상품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전환 시 적용하는 전환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전환방법은 수익뿐만 아니라 자본 규모에도 영향을 준다. 공정가치법은 소급법에 비해 보험계약마진이 작게 산출되어 부채 평가액 증가가 완화된다. 그러므로 전환 시 보험회사가 보유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많이 적용할수록 향후 인식되는 이익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전환 시점의 자본은 증가한다.

일부 상장 보험회사의 실적발표(2022년 3월 말)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한 결과 제도 변경에 따른 자본 감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보험계약마진이 좀 더 높은 소급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회사는 자본 부담 외에 시스템 구축 상태, 소급기간에 따른 산출시간 증가 등의 이유로 소급기간 축소 및 공정가치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나. 이익

IFRS17에서는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이 손익계산서에서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IFRS4와 차이가 있다. 또한 IFRS4에서는 보험기간에 따라 이익과 손실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나 IFRS17에서는 보험기간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보험이익이 발생한다.

IFRS17에서 나타나는 보험이익의 변동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 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보장성상품은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암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는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품별로 보험료가 상이하므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으로 '보험계약마진율(보험계약마진/수입보험료 현가)'을 이용한다. 종신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마진율이 저축보험,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가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률, 해지율 및 할인율 변화에 따른 마진율을 비교하였다.

다. 자본

IFRS17 도입 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저금리에 따른 낮은 할인율 적용 시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인한 자본 감소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적기시정조치 적용,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 폐지 등의 이슈가 제기되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적 평가방법 개선, 할인율 곡선 변경 등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할인율을 통한 부채 증가 완화는 국내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어서 유럽 지급여력 제도인 Solvency II 도입 시와 대만의 신지급여력제도(T-ICS)의 Field Test에도 할인율에 대한 다양한 완화 방안을 적용하였다.

보험회사의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할인율 적용과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부채 증가 부담은 매우 완화된 상태이다. 전환 시 보험회사의 자본 규모는 전환방법의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본 부담이 컸던 생명보험회사들도 공정가치법이 아닌 1~3년 소급법 적용을 검토할 정도로 자본 부담이 완화되었다.

IV

IFRS17의 경영 전략적 유인과 시사점

1. 보험영업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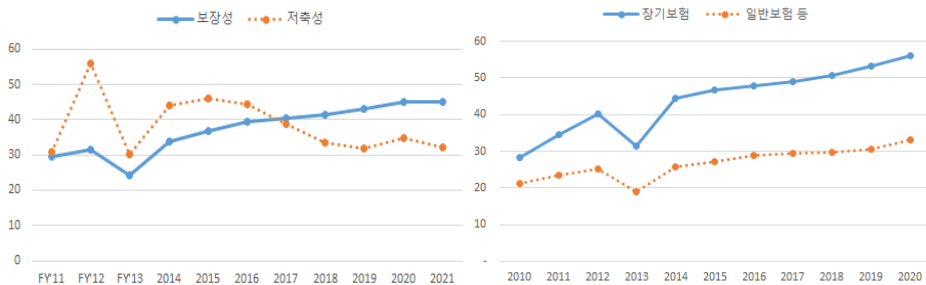
보험회사는 IFRS17 손익계산서상의 보험수익을 보험영업의 주 관리 지표로 이용할 것인가? IFRS17에서 보험수익은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험부채의 일부를 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수익이지만, 보험회사의 실제 당기 현금유입(수입보험료)과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험수익항목인 보험계약마진이 영업 관리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보험계약마진이 큰 상품을 중심으로 영업할 것이며, 이는 사실 보험회사들이 수년 전부터 회계제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온 방식이기도 하다.

IFRS17 도입 준비를 위해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모두 보험계약마진율이 높은 장기 보장성상품 위주로 판매 전략이 변경되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014년부터 보장성 보험 판매가 증가하여 2017년 이후 보장성보험의 판매량이 저축성보험을 능가하였다. 손해보험회사는 장기보험이 일반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원수보험료 규모가 더 크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림 IV-1〉 보험종류별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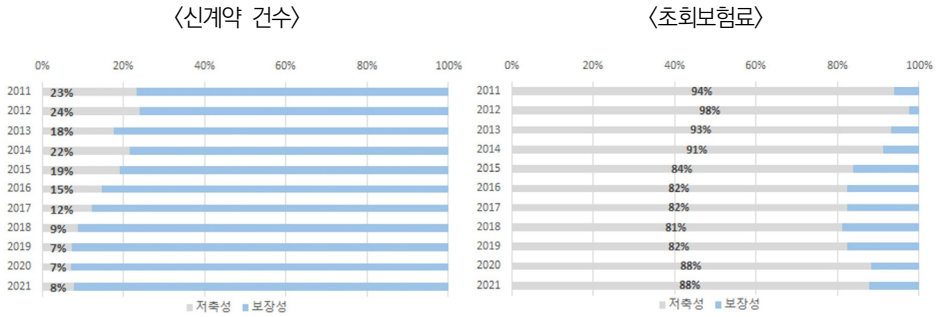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위원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이 중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상품 변화를 좀 더 살펴보면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2011년 23%에서 2021년 8%까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초회보험료는 저축성보험 비중이 2011년 95%에서 2018년 81%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88%로 최근 다시 증가하였다. 신계약 건수는 감소하나 초회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방카슈랑스 위주의 일시납 저축보험 판매에 의한 것³⁵⁾ 이므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IV-2〉 생명보험회사 보험종류별 신계약 건수 및 초회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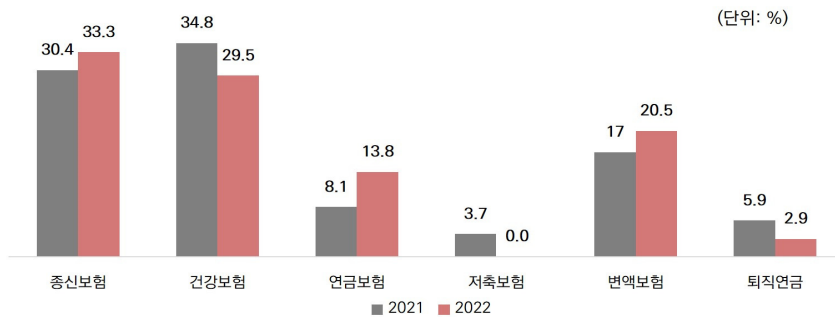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이미 생명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를 지양하고 보장성보험 위주의 판매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여전히 보장성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V-3〉 생명보험회사 향후 2~3년간 주력 상품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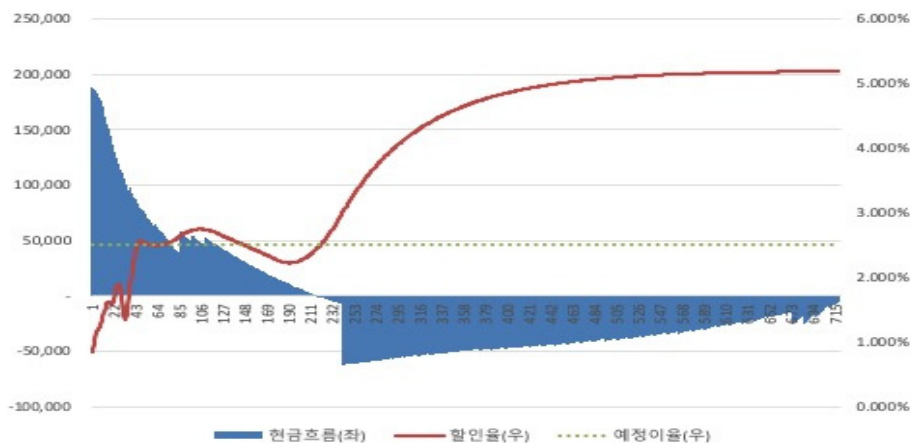
자료: 김세중·김유미(2022)

35) 김세중·김혜란(2022)

경영지표변화(I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마진이 저축성보험보다 높으므로 매출 확대가 곧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되었다.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종신보험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험계약마진율이 높으므로 건강보험에 대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판매 중인 상품이므로 생명·손해보험회사 업권 간 판매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기선도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은 환경이 유지될 경우 보험영업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보험료 납입시점에는 예정이율 대비 낮은 금리, 보험금 지급 시기에는 예정이율 대비 높은 금리로 할인하므로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보험계약마진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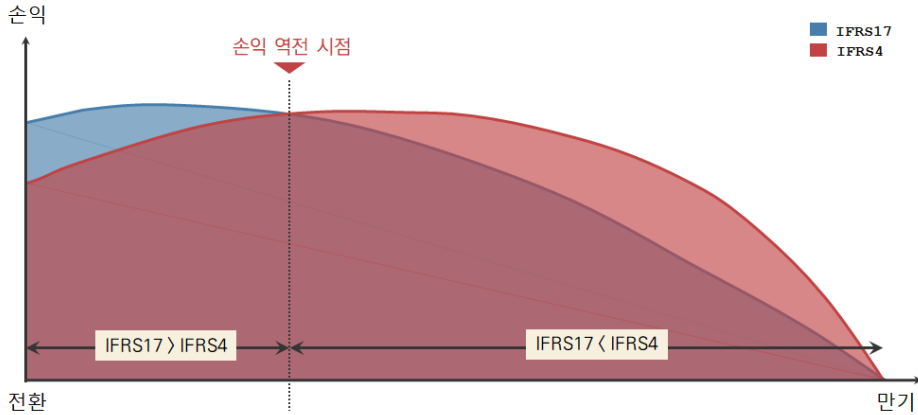
〈그림 IV-4〉 보험계약 현금흐름



즉, 예정이율 대비 높은 할인율로 인해 보험계약마진이 단기에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반면 이로 인한 높은 시간가치는 뒤늦게 금융비용으로 인식되어 신계약 초기에는 IFRS17 손익이 IFRS4 손익보다 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신계약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수록 손익 역전시점이 연기되므로 IFRS17로 인해 오히려 영업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보험기간 초기에 해약환급금 등 보험금 지급이 적거나 없는 무저해지 상품의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그림 IV-5〉 IFRS4와 IFRS17 손익 비교



자료: 이준호(2021)

2. 손익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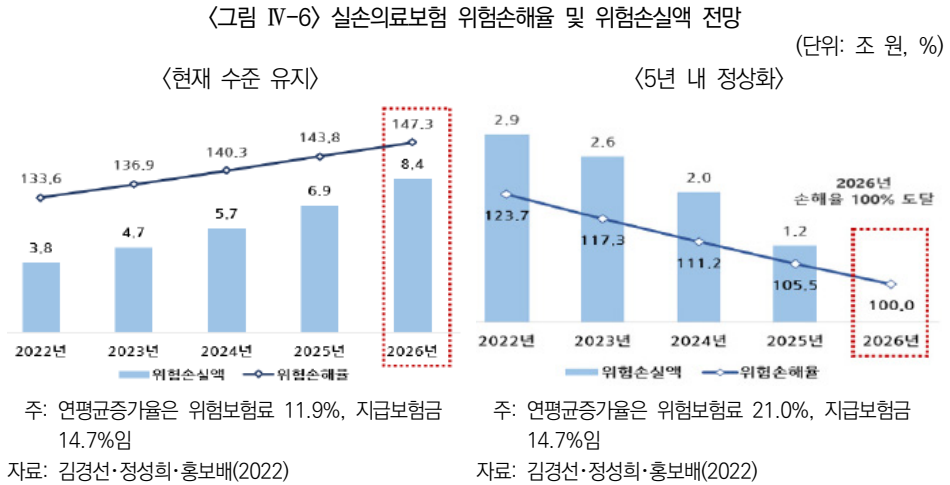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수익성은 높이되 이익변동성은 낮추려고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수익성만 본다면,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장성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I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에 비해 보험계약마진율이 높다. 다만,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길어 사망률, 해지율, 할인율 등의 가정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종신보험 등 장기 보장성 위주 상품 판매 전략은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변동성도 증가시키므로 적정 비중을 찾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계적으로 보면 IFRS17에서 보험회사의 보험이익 규모는 보험계약마진이 상각되는 부분(상품마진) 이외에도 예상 보험금·사업비와 실제 보험금·사업비의 차이(예측마진), 위험조정 변동(위험마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결국 보험회사의 보험이익은 상품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추정 능력과 비용 관리 능력에 따라 규모와 변동성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보장성보험이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매우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위험손해율은 130% 이상이며 최근 3년의 지급보험금 증가율 14.7% 및 위험보험료 증가율 11.9%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향후 5년간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 원으로 추정된다.³⁶⁾

36) 김경선·정성화·홍보배(2022)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위험손해율이 10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지급보험금이 현행과 동일하게 증가한다면 5년 동안 매년 21%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연간 20% 이상 보험료 인상을 한 적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면 실손의료보험은 IFRS17에서 예상손실액 처리에 따라 계약 초기부터 당기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³⁷⁾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상품을 가정하였다.

〈표 IV-1〉 상품 가정

구분	주요 가정
실손의료보험	남자 20세, 100세만기 전기월납, 갱신주기 1년, 보장변경주기 15년, 월납보험료 4천 원, 계약 체결 후 5년간 선택효과(50~100%), 최종 보험금지급률 120%

최초 시점의 부채규모는 IFRS4에서는 0원이나 IFRS17에서 2만 원으로 계약체결 즉시 월 납보험료 5배나 되는 부채를 적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손익도 IFRS4에서는 1.4만 원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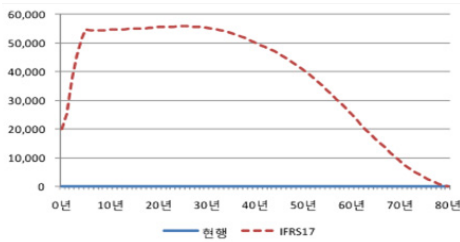
37) 보험개발원(2017)

IFRS17에서 △2.3만 원으로 계약초기부터 당기손실이 발생하므로 손실부담계약으로 인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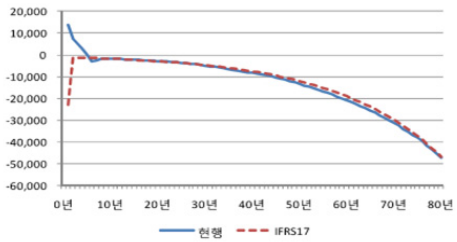
〈그림 IV-7〉 실손의료보험 경과기간별 부채규모 및 당기손익 예시

(단위: 원)

〈경과기간별 부채규모〉



〈경과기간별 당기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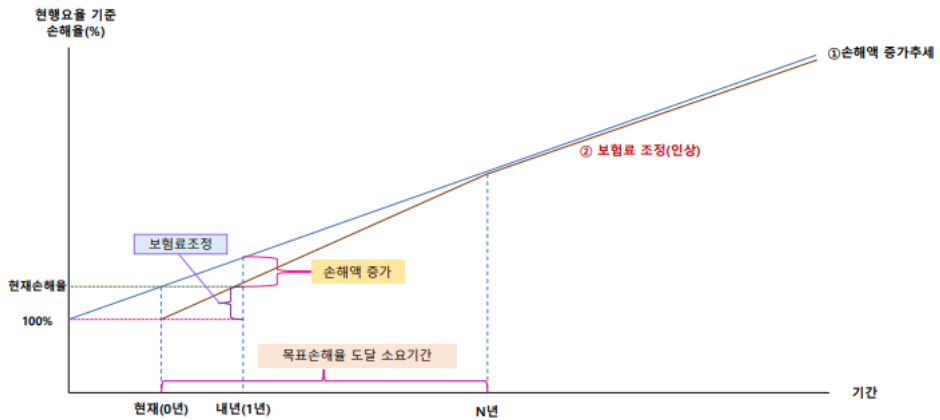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2017)

자료: 보험개발원(2017)

따라서, 손해액 증가추세, 보험료 조정, 목표손해를 도달 소요기간 등 실손의료보험 부채 평가를 위한 가정을 회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8〉 실손의료보험 현금흐름추정 요소



자료: 한국보험계리사회(2022)

이처럼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계리적 가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익이 달라지므로 감독당국, 투자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가정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자본 관리

자본 관리는 효율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즉 보험회사가 적정한 규모의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회사가 적정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없이 즉시 상장폐지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어 감독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이 어렵다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 적기시정조치는 RBC 비율에 따라 3단계(권고, 요구, 명령)로 구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적용한다.

〈표 IV-2〉 적기시정조치

구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기준	50%≤지급여력비율<100%	0%≤지급여력비율<50%	지급여력비율<0%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증액 또는 감액 • 고정자산 투자 제한 • 부실자산 처분 • 주주, 계약자 배당 제한 • 신규업무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 폐쇄 및 통합 • 임원진 교체 요구 • 보험업 일부 정지 • 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 자회사 정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일부 또는 전부 소각 •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 계약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제3자에 의한 보험업 인수 •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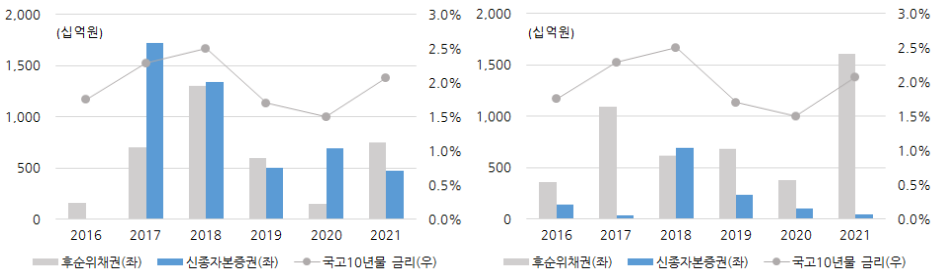
부실금융기관은 「금융 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며 지급여력비율 미달 등의 사유 발생 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경영상태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 금융당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IFRS17 도입과 함께 부채시가평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도입되는데, K-ICS 비율은 RBC 비율과 동일하게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되지만 평가 방법, 측정 대상 등에서 차등화된다.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 상향 조정, 신규 리스크 추가 등으로 인해 적정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용자본뿐만 아니라, 요구자본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IFRS17과 동시에 시행되는 K-ICS에서 제공하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관리 유인을 살펴본다.

가. 가용자본

지급여력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므로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위해서는 요구자본 축소 또는 가용자본 증가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가용자본 관리방법인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발행은 가용자본 증가에 목적이 있다. 이 중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과 같은 자본성증권은 금리 변화에 따라 발행량 수준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RBC에서는 금리 상승 시 발행량이 증가하나 K-ICS 도입 이후에는 금리 하락 시 발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V-9〉 생명보험회사 자본성증권 발행 추이 〈그림 IV-10〉 손해보험회사 자본성증권 발행 추이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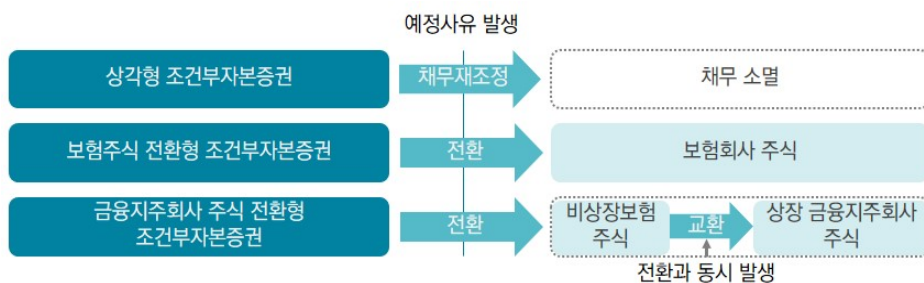
K-ICS에서 가용자본은 자본의 질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되며 보완자본은 총 요구자본의 50%가 최대한도이다. 또한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보통주 이외의 자본성증권은 총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초과하는 보통주 이외의 자본성증권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며 만기 시 Lock-in 조항³⁸⁾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결산시점에 만기가 5년 미만이면 매년 20%씩 가용자본 인정금액에서 차감한다.

RBC는 가용자본에 대해 해당항목을 열거하는 방식인 반면 K-ICS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의 계약 조건에 따라 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K-ICS는 은행과 유사하게 손실흡수능력이 강화된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을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38) 보험회사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불이익(연체이자 발생 등)이 없이 상환 및 배당(이자)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계약상 조건임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본증권을 지칭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사유 발생 시 전환 방식에 따라 ① 원리금 상환 의무가 감면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②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③ 비상장주권법인의 경우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IV-11〉 조건부 자본증권 유형



유럽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Solvency II)는 조건부자본증권을 기본자본(Tier 1)의 20%³⁹⁾ 한도로 인정한다. 가용자본을 질(質)에 따라 3단계(Tier 1, 2, 3)로 구분하는데, 기본자본(Tier 1)은 요구자본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Solvency II 시행(2016년) 이전에 가용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은 경과조치 적용받는 경우 10년간(2025년 말)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 이후 제외된다.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시행될 K-ICS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정한다. K-ICS는 조건부자본증권을 총요구자본⁴⁰⁾의 15%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비조건부 신종자본증권도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나 총요구자본의 10%까지만 인정되며, 이러한 방식은 국제기준(ICS)과 동일하나 유럽기준(Solvency II)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이다.

조건부자본증권 도입으로 자본성 증권에 대한 선택지는 증가하였으나 가용자본 인정조건이 현재보다 강화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감소 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39) EU(2015)

40) 이 때 요구자본은 총요구자본으로 상관계수를 반영한 요구자본 합계액인 기본요구자본에서 법인세 조정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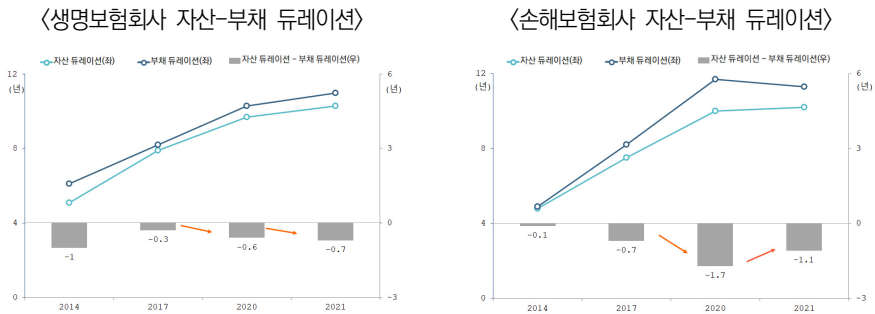
나. 요구자본

1) 장기채 매입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부채평균잔존만기(부채듀레이션)가 자산평균잔존만기(자산듀레이션)보다 더 길다. 자산부채듀레이션 불일치에 따른 금리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채 매입을 통해 자산듀레이션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일반적으로 활용한다.

보험회사는 K-ICS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자산듀레이션을 증가시켜 자산-부채듀레이션 갭을 축소시키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 $\Delta 0.7$ 년, 손해보험회사는 $\Delta 1.1$ 년 듀레이션 갭을 나타낸다.

〈그림 IV-12〉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2021)

장기채 발행현황을 보면 만기 30년물 이상 국고채의 발행은 매년 증가하여 발행 잔액이 200조 원 이상이다. 하지만 생명·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은 1,000조 원을 초과⁴¹⁾하므로 국내 장기채만으로는 자산듀레이션을 증가시키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41) 2020년 6월 말 기준 생명보험회사 748조 원, 손해보험회사 270조 원으로 합산하면 1,018조 원임

〈표 IV-3〉 발행잔액(국고채)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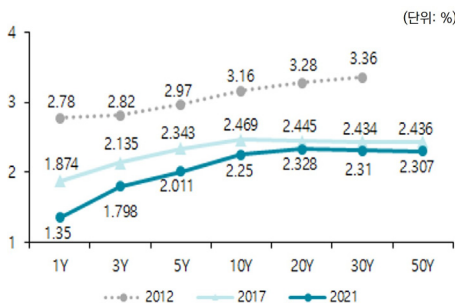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년물(비중)	-	-	-	-	12.5(1%)
3년물(비중)	51.1(9%)	47.2(8%)	47.4(8%)	62.7(9%)	82.3(10%)
5년물(비중)	109.5(20%)	104.2(18%)	99.3(16%)	109.1(15%)	117.7(14%)
10년물(비중)	209(38%)	204.5(36%)	217.6(36%)	249.4(34%)	264.6(31%)
20년물(비중)	108.3(20%)	117.5(21%)	124.8(20%)	136.7(19%)	145.3(17%)
30년물(비중)	67.6(12%)	90.2(16%)	115.8(19%)	158.1(22%)	205.9(24%)
50년물(비중)	1.3(0%)	3.4(1%)	6.7(1%)	10.8(1%)	15.4(2%)
합계	546.7	567.0	611.5	726.8	843.7

자료: 기획재정부(2022)

또한 장기인 국고채권의 매입 증가는 금리가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국고채의 만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는 장기물 수요가 많아 만기가 긴 국고채 수익률에 대한 역전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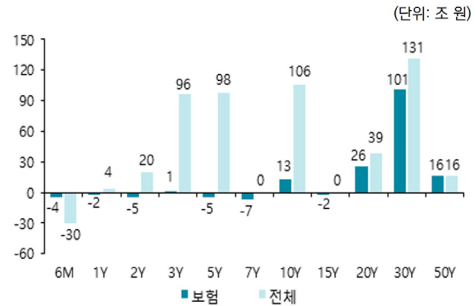
만기가 긴 채권 수익률의 역전 현상은 만기 30년 이후 국고채 금리 수익률이 만기 20년 수익률에 비해 낮은 현상을 지칭하며 임준환·황인창(2017)과 임준환·문혜정(2021)은 이러한 수익률 역전 현상을 보험회사의 국고채 수요 증가로 설명한다. 보험회사 국고채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투자자에 비해 보험회사는 만기 20년 이상 국고채 순매수 금액이 절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3〉 국고채 금리기간구조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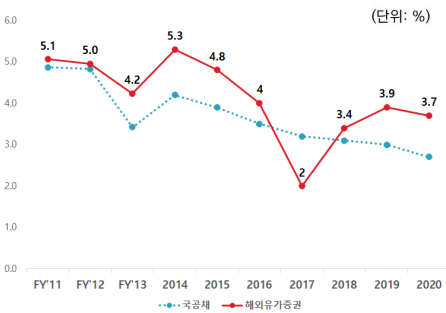
〈그림 IV-14〉 보험회사 국고채 순매수 현황('18. 1~'22. 3)



자료: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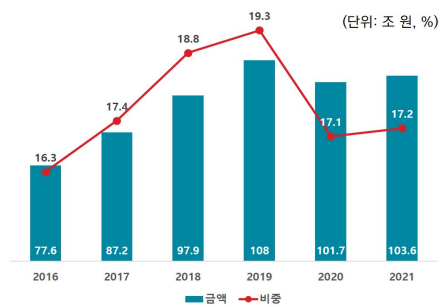
만기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국내 채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에는 국고채보다 수익률이 높고 만기가 긴 외화장기채권의 매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외화채권(외화유가증권)은 국공채에 비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으나 환헤지 손실 등이 발생하면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IFRS17에서 보험부채는 통화별로 할인하므로 자산 내 외화채권의 비중이 높으면 서로 다른 금리의 움직임으로 인해 자본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K-ICS 금리리스크도 통화별로 측정하므로 외화채권(외화유가증권)의 증가는 새로운 제도에서 금리리스크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화 채권은 과거에 비해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V-15〉 수익률 비교(국공채, 외화유가증권)



자료: 생명보험협회, 50년 통계

〈그림 IV-16〉 외화유가증권 금액 및 비중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2) 파생상품

K-ICS는 RBC와 다르게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측정하므로 채권 매입뿐만 아니라 선도채권(bond forward), 이자율 스왑, 국채선물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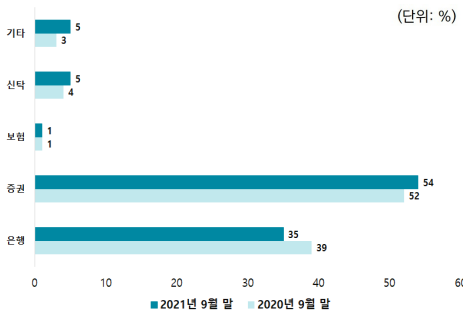
채권선도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기간 후 채권을 매수할 것으로 약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 10년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5년 선도채권 계약매입이라면 5년이 지난 후 10년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⁴²⁾ 보험회사는 채권선도 매입을 통해 미래 시점의 채권 매입 가격을 현재에 확정함으로써 듀레이션 조건 충족과 수익 극대화를

42) 임준환(2018)

동시에 할 수 있다. RBC에서도 채권선도를 활용하여 금리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제도가 최근 개정⁴³⁾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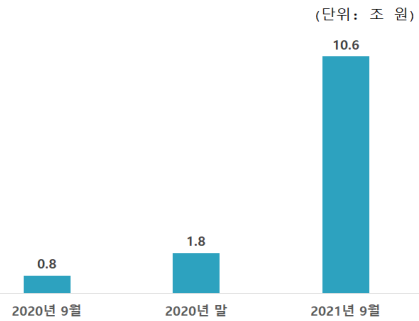
RBC에서 채권선도가 금리위험 관리 수단으로 허용된 이후 채권선도 이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보험회사는 은행, 증권 등에 비해 파생상품 거래비중이 1% 수준으로 매우 낮으나 2020년 9월 말 RBC 제도 개선 이후 채권선도 거래금액⁴⁴⁾이 1년 만에 0.8조 원에서 10.6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K-ICS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가 현재에 비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V-17〉 업권별 파생상품 거래비중



자료: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그림 IV-18〉 채권선도 거래현황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한편, 채권선도는 계약 체결 시 즉시 금리위험 노출, 실제로 현물 채권이 양도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 장외 거래로 인한 거래 상대방 위험, 채권선도 결제시 점에 채권 매입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하는 유동성 문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

파생상품으로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이자율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 채권선물은 현재 만기 10년 이하의 상품만 존재하여 보험회사의 금리 위험 관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최근 검토 중인 30년물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한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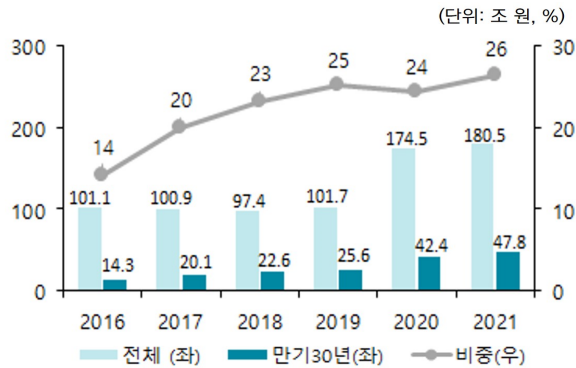
4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6. 30),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44) 금융감독원의 이자율선도 거래현황에는 채권선도 외에 FRA(Forward Rate Agreement)도 포함되나 보험회사는 채권선도 위주로 거래하므로 이자율선도 거래현황을 통해 채권선도 거래현황을 추정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2021)⁴⁵⁾는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 갭 축소를 위한 보험회사의 수요를 인식하고 있으며 초장기물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전체 국고채에서 30년물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2021년 말 현재 26% 수준이며 발행금액도 50조 원에 가까워 과거에 비해 높은 비중과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고채 30년물 거래대금이 많지 않아 장기국채선물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⁴⁶⁾이 있었으나 최근의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만기 30년 국채 선물 도입이 2024년 1분기로 예정⁴⁷⁾되어 있다.

〈그림 IV-19〉 국고채 발행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위해 장기채권 매입보다는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화별 부채 평가 및 환헤지 비용 등으로 인해 해외채권은 과거에 비해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12. 24),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

46) 연합인포맥스(2017. 1. 18), “국채선물 30년물 도입에 신중한 기재부 왜”

4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 10. 25), “제9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최 -“국채 1,000조 원 시대, 도전요인과 새로운 도약” 주제로 성황리 개최-”

4. 소결

가. 보험영업관리

IFRS17 도입 준비를 위해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모두 보험계약마진율이 높은 장기 보장성 상품 위주로 판매 전략이 변경되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014년부터 보장성보험 판매가 증가하여 2017년 이후 보장성보험의 판매량이 저축성보험을 능가하였다. 손해보험회사는 장기보험이 일반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원수보험료 규모가 더 크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영지표변화(I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마진이 저축성보험보다 높으므로 매출 확대가 곧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된다.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건강보험의 보험계약마진율이 높으므로 건강보험에 대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제3보험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판매 중인 상품이므로 생명·손해보험회사 업권 간 판매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손익관리

보험회사의 수익성만 본다면,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장성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에 비해 보험계약마진율이 높다. 다만,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길어 사망률, 해지율, 할인율 등의 가정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종신보험 등 장기 보장성 위주 상품 판매 전략은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변동성도 증가시키므로 적정 비중을 찾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계리적 가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익이 달라지므로 감독 당국,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가정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자본관리

보험회사가 적정한 규모의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IFRS17 도입과 함께 부채시가평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는 자산 및 보험부채에 대한

완전 시가평가, 리스크 평가 대상 다양화, 리스크 측정 방식 정교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 상향 조정, 신규 리스크 추가 등으로 인해 적정 K-IC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용자본뿐만 아니라, 요구자본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용자본은 조건부자본증권 도입으로 자본성 증권에 대한 선택지는 증가하였으나 가용자본 인정조건이 현재보다 강화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감소 방안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구자본 중 금리리스크 감소를 위해서는 장기채권 매입 외에 국채선물, 이자율 스왑, 선도채권(Bond forward)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화별 부채 평가 및 환헤지 비용 등으로 인해 해외채권은 과거에 비해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 가정 검증을 위한 프로세스 확립

가. 개요

앞장에서 IFRS17의 경영전략적 유인을 보험영업관리, 손익, 자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보험계약마진이 높은 상품위주 영업, 마진 상각에 따른 손익 발생, 손익평가를 반영한 자본관리 등 이러한 경영전략은 보험부채 평가 가정에 기반을 둔다. 과거에는 감독회계에서 규정 중심의 방법을 제시하고 일반회계에서 이를 준용하였지만 이제는 감독회계도 원칙 중심으로 변화하여 보험회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정으로 경영활동이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감독회계는 IFRS 전면 도입국이라는 제약 조건하에서 비용(회사부담) 대비 효익(감독효과) 극대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간 조화 추구라는 원칙⁴⁸⁾에 따라 사업비율, 해약율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해 원칙 중심의 산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가정산출 원칙으로 보험회사가 내부 및 외부에서 이용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되 내부정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외부 정보 이용의 합리성 등 요건 충족 시 외부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계리적 가정에 대한 산출기준은 매 회계연도별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서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산출기준 변경이 가능하고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된 최근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해 원칙과 최소한의 세부 기준만을 제시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가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비 회계처리의 경우에도 현행 감독회계는 실제 사용한 신계약비에 대한 최대 이연기

48)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2021)

간(7년)과 한도가 제시되고 사업비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을 제시하나 개정된 감독회계는 사업비 배분 및 분류 기준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자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산출과 관련하여 회계정책서, 계리방법서 등을 작성하고 작성된 문서의 작성자·검토자·승인자를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회계정책서는 IFRS17에 따라 책임준비금 산출함에 있어 회사가 선택한 회계정책 및 해당 정책의 선택 근거를 상세히 기술하며 계리방법서에는 책임준비금 하위 계정인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보험료배분접근법 평가 시 적용한 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표 V-1〉 계리적 가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경험통계 기반으로 미래 사업비 정책, 보험금 지급 정책의 변화 및 효율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 • (세부 기준) 보험취득 현금흐름, 계약유지비, 손해조사비, 투자관리비로 구분하고 판매채널의 특성 반영하여 구분 산출
계약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경험통계 기반으로 경과기간별 구분 산출 • (세부 기준) 계약자옵션, 가입연령, 가입 후 경과기간, 납입방식, 판매 채널 등 세칙에서 제시하는 요소 등을 고려
위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며, 보장하는 위험담보별로 산출 • (세부 기준) 사망, 생존, 일반손해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연령, 성별, 직업 등 세칙에서 제시하는 세부요소 등을 고려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경험통계와 미래추세를 고려하여 보험료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 설정 • (세부 기준) 보험료 추가납입, 납입면제, 중도인출 등 반영 가능
계약자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계약자행동 가정(실효·해약 등 계약자 옵션 행사에 대한 가정)은 과거 계약자행동에 기반을 두어 산출 • (세부 기준) 금융시장 상황, 회사 대고객정책을 반영하여 산출
경영자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 • (세부 기준) 회사가 대외적으로 공시한 사항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

자료: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2021)

감독회계가 사업비, 해지율 등을 포함한 계리적 가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원칙 중심으로 변경되어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다양한 검증 프로세스가 추가되었다.

보험업법⁴⁹⁾에서 선임계리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자체 검증을 강화하고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한 외부 검증⁵⁰⁾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V-1〉 보험부채 검증 프로세스



나. 개선사항

이러한 원칙 중심의 감독회계 대응을 위해 보험회사는 가정관리 프로세스 확립 및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IFRS17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상품개발 등 부서가 포함된 가정관리위원회 운영, 가정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집적 및 관리 등 가정 관리 프로세스 확립이 중요하다.

또한 보험부채평가는 선임계리사를 통한 자체 검증과 더불어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을 통한 적정성 검증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무표준 등을 활용한 업계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 보면 많은 회사들이 업계 공통의 실무표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본 금융청(2022)은 원칙론적 보험부채평가는 보험회사의 자주적인 리스크관리 고도화 축진이 기대되나 회사 간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내부 검

49) 보험업법 제181조(보험계리), 제181조의 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시행일 2023. 7. 1]

50)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의 2(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증체제 정비, 외부 검증의 제도적 위치 설정 등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부채 평가기법과 관련된 일정한 통일성 또는 방법론 선택 시 유의점 등을 고려하고 보험부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검증방법 및 프로세스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해외와 유사하게 업계 전문가(보험계리사회 등)를 활용한 실무 표준 작성으로 업계 공통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계리사회는 다양한 계리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사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내에는 기존에 3개의 실무표준(보증준비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만 존재하였다. 최근 보험계리사회가 실무기준을 제정⁵¹⁾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화된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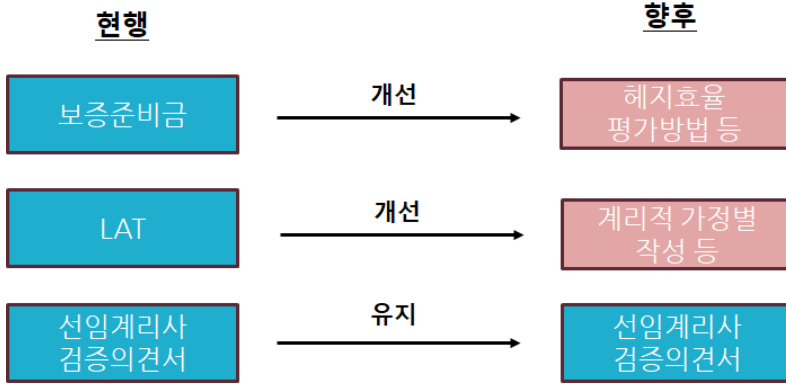
보증준비금은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감독회계에서 여전히 존재하며 헤지효율에 따라 준비금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헤지효율 평가방법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LAT에 대한 실무표준은 계리적 가정별로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는 세부 내용을 제도 변화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는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될 수 있으나 보증준비금,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 대한 실무표준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51) 한국보험계리사회 보도자료(2021. 11. 8), “한국계리실무기준(KSAP) 제4호 및 IFRS17 계리적 가정 실무기준 제정”

〈그림 V-2〉 실무표준 개선방안



2. 자본 관리 효율성 제고

가. 개요

보험회사는 IFRS17, K-ICS 제도 대응을 위해 장기채 매입, 파생상품 활용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금리변화에 민감한 보험부채를 조정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자본관리가 될 수 있다. 자본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 공동재보험 등 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설문조사에서 보험회사들이 제도 도입 및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부채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개선사항

1) 계약 이전

계약 이전은 대상 계약의 자산과 부채를 타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에 의한 '강제적 계약이전'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임의적 계약이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제적 계약이전’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부실화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요건하에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임의적 계약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하에 보험계약 전체나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계약에 대해서 다른 보험사로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이전 대상계약 보험계약자 총수의 1/10 또는 보험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하는 제한⁵²⁾이 있다.

국내는 2003년 하나생명의 계약 이전 사례가 존재한다. 하나생명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방카 전문회사 변환 목적으로 보험계약 중 일부를 ABL생명(당시 알리안츠 생명)에 이전하였다.

〈표 V-2〉 계약 이전 세부 내용

인가일자	2003. 5. 16
이전대상 보험계약	보유계약 32종목 19,057건(책임준비금 680억 원) 중 20종목 17,809건(책임준비금 464억 원)으로 2002년 말 준비금의 68%를 이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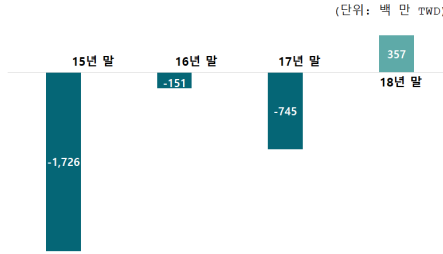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3. 5. 16), “하나생명보험(주)의 보험계약 일부이전 인가안 신청개요”

해외 사례⁵³⁾를 보면 대만의 생명보험사인 대만 알리안츠는 대만 China life에 계약을 이전하였다. 대만 알리안츠는 다년간 지속된 손실로 인한 자본관리목적이었으며, 대만 China Life는 규모 증대와 위험 관리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2018년 5월에 진행되었다. 대만 알리안츠는 영업이익이 2017년까지 손실이었으나 2018년부터 이익으로 전환되었고, 대만 China Life는 시장점유율이 2017년 6%에서 2018년 8.6%로 증가하였다.

52) 보험업법 제 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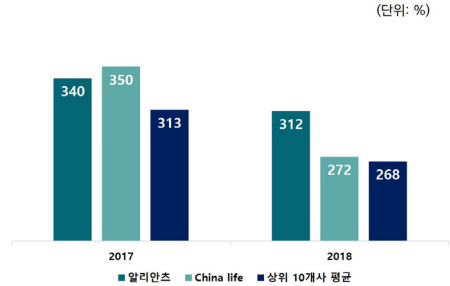
53) 노건엽·김석영·손민숙(2021)

〈그림 V-3〉 대만 알리안츠 영업이익 변화



자료: 보험개발원(2019)

〈그림 V-4〉 RBC 비율 비교



자료: 보험개발원(2019)

계약 이전은 협소한 의미의 M&A로 거래참가자가 보유한 정보의 차이로 인해 보험부채 평가 차이가 생기면 거래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참가자 간 경쟁우위, 특성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는 계약이전 거래 유인이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거래유인 발생이 가능한 대상 계약과 거래상대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계약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Run-off 포트폴리오⁵⁴⁾를 이전하는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Run-off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가 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진입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사모펀드 및 재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Run-off 플랫폼들이 전체 보험시장 자산의 약 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계약 재매입

계약 재매입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한 계약을 다시 매입하여 보험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장부가치(해약환급금)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불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을 매입할 수 있다.

벨기에 생명보험회사들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금리 보증계약에 대한 계약 재매입을 실시하였다. Ethias는 정책당국에 의한 강제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한 반면, AXA Belgium는 신제도(Solvency II) 도입에 따른 경영대응으로 실시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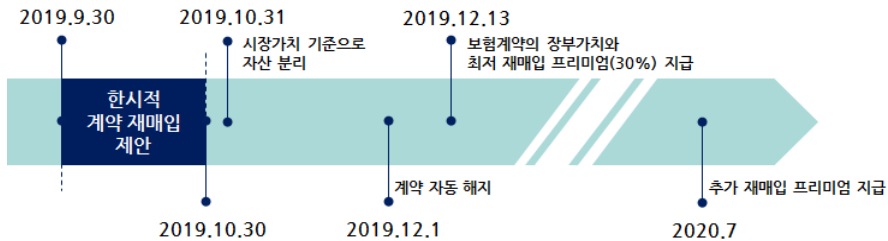
Ethias는 벨기에 내 2007년 기준 시장점유율 13%, 110만 계약자를 보유한 보험그룹으로

54) 계약인수 및 갱신은 중단하였지만 보험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 계약을 의미함

생명보험회사, 배상책임 및 산업재해보장 보험회사가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로 인해 15억 유로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경영진 교체, 상품 개정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Ethias와 AXA Belgium은 저축성상품 중 2000년 이전 계약에 대해 계약 재매입을 시행하였고 해지환급금에서 10~30%를 추가적(프리미엄)으로 제시하였다. 보험계약자 중 관심 있는 자는 보험모집인에게 연락하며, 보험모집인은 자문만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계약 재매입의 승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 재매입이 진행되고 제출 후 취소는 불가능하다.

〈그림 V-5〉 계약 재매입 절차 예시(AXA Belg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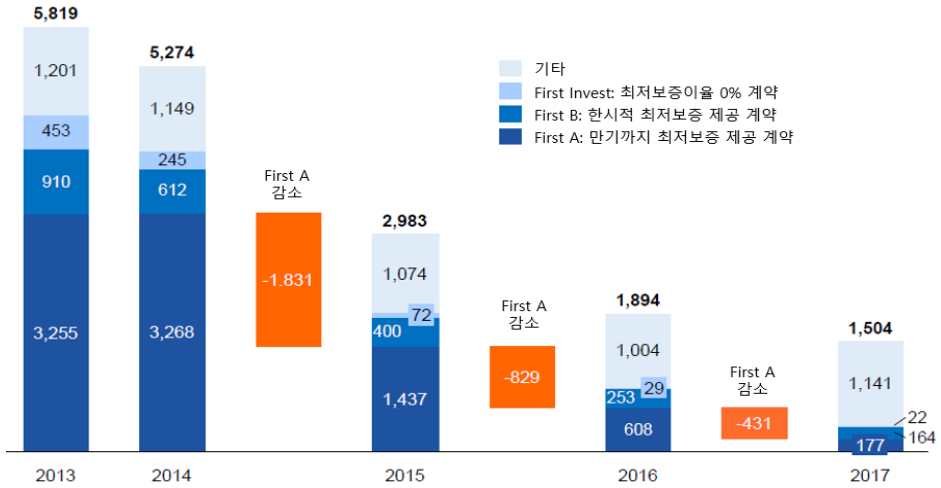


자료: AXA Belgium(2019)

Ethias는 4차례의 계약 재매입을 통해 고금리 보증계약 준비금의 94% 이상을 축소시키고 듀레이션 갭이 축소되어 Solvency II 지급여력비율이 67%p 상승하였다. AXA Belgium은 2016년에 실시한 계약 재매입에서 고금리 보증계약 보유 보험계약자 중 2/3가 계약 재매입을 신청하였다.

〈그림 V-6〉 Ethias의 개인 생명보험 부채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Ethias(2018)

계약 재매입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행위 규제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이해와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 재매입으로 인해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 유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공동재보험⁵⁵⁾

공동재보험(Coinsurance)이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등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재보험은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보험 위험만 이전한다.

55) 노건엽·김석영(2020)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그림 V-7〉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 비교

〈전통적 재보험〉

〈공동재보험〉



공동재보험은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을 포함한 다른 위험까지 재보험사에 출재가능하며 1년 이상 장기로 계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동재보험은 자산 및 부채가 전부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형태 외에 부채만 이전되는 변형된 계약도 가능하며, 국내는 현재 두 가지 형태의 계약이 모두 허용된다.

일반적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보유한 운용자산과 책임준비금(부채)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 형태를 이해하기 쉽고 재보험사 자산운용능력을 활용할 수 있으나 재보험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이 존재하고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투자를 통제할 수 없어 계약자 배당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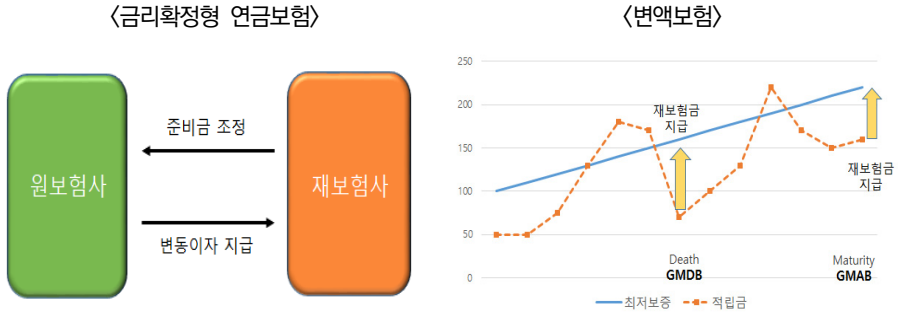
한편 변형된 공동재보험(Modified Coinsurance)⁵⁶⁾은 원보험사가 보유한 책임준비금만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재보험 거래로 인한 거래상대방 위험이 감소되며 원보험사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제약이 없으나 계약 형태가 복잡해질 수 있다.

해외 보험회사들은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의 금리 위험, 변액보험이 내포한 최저보증에 대한 위험 등 다양한 계약형태의 위험을 이전하는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한다.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은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준비금을 조정하고 원보험사는 변동 이자를 재보험사에 지급하여 금리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최저적립금보증(GMAB)에 대한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다.

56) 유럽식 공동재보험(European coinsurance) 또는 자산예탁 공동재보험(Coinsurance with funds withheld)을 말하며 자산, 부채 이전이 없는 미국식 변형된 공동재보험(American Modified Coinsurance)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

〈그림 V-8〉 상품별 공동재보험 사례



자료: 노건엽·김석영(2020)

이러한 공동재보험은 출재비율에 따라 위험이 이전되는 ‘비례재보험’ 방식의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어 생명보험회사 3개사⁵⁷⁾가 이미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재보험 방식만 허용되고 있어 ‘비비례재보험’ 같은 다양한 형태를 허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이 좀 더 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

57) ABL생명 100억 원(2021. 3), 신한라이프 2,300억 원(2022. 1), 삼성생명 5,000억 원(2022. 11)

VI

결론

과거에는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부채 증가로 인해 자본 부족을 염려하였으나 도입 첫해인 지금은 그 양상이 달라졌다. 제도 도입 준비 10년 동안 보험회사의 자본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었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연락처 방안이 시행되었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 국면에 들어서 보험회사의 부채 증가 부담이 완화되었다. 이제는 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 부족보다는 보험계약마진을 통한 이익 확보 및 자본 관리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제도 도입 준비 초기에는 보험회사가 '매출 중심에서 가치 중심의 경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매출 확대를 위해 저축성보험을 주로 판매하였지만, 수년 전부터는 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는 '매출 확대가 곧 가치 경영'이 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설문조사(II장) 및 상품별 영향평가(III장)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마진이 높은 보장성보험, 특히 건강보험 위주의 영업 전략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손해보험회사 업권 내 그리고 업권 간 경쟁이 현재보다 더 치열해져 동일한 보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타사보다 다양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상품 판매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회사별 또는 업권별로 차별성 있는 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수익성 높은 특정 상품 위주의 판매 경쟁이 심화된다면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손익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서론에서 단기실적 위주의 과당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지속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려 하였다. 하지만 IFRS17 도입 이후 대다수 보험회사가 평가지표로 보험계약마진을 적용함에 따라 수익성 높은 상품에 대한 판매 경쟁이 오히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보험회사도 있었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을 직접 활용하기보다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한 '조정 보험계약마진'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리스크에 기반을 둔 가치경영은 일정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는 보험산업 자본 및 성과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관리·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IFRS17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다. 2023년에는 IFRS17 기준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므로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 성과지표의 방향성 제시를 목표로 한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15), 「IFRS4 2단계 도입이 보험회사 경영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IFRS4 2단계 도입준비 설명회
_____ (2021a),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이해」
_____ (2021b),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진행현황 및 감독방향」, 2021 thebell
보험포럼
_____ (2022a), 「2022년도 보험감독 업무계획」,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_____ (2022b), 「2023년 금리기간구조 할인을 산출기준 안내」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2021), 「2023년 IFRS17(보험계약) 시행 대비 보
험감독회계 도입방안」
기획재정부(2021),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
_____ (2022), 「국채 2021」
김경선·정성희·홍보배(2022),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II): 건강보장 정책 방향」,
『CEO Report』, 보험연구원
김세중·김유미(2022),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CEO Report』, 보험연구원
김세중·김혜란(2022), 「최근 금리변동과 저축보험 동향 및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
연구원
김준현·정도진·정아름(2020), 「신보험계약기준서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변화가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정보생산자 관점」, 『회계저널』
김해식(200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김해식(2017a),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CEO Report』, 보험연구원
_____ (2017b), 「보험회사 상품구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_____ (2017c), 「보험회사 성과지표의 변화: IFRS17 시행은 사업모형 혁신 기회」,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노건엽(2021), 「신지급여력제도(K-ICS) 에서의 할인율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_____ (2022), 「최근 RBC 제도 변경과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노건엽·김석영(2020), 「공동재보험 주요내용과 적용사례」,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노건엽·김석영·손민숙(2021), 「보험산업 수익성과 대응방안: 내재가치를 중심으로」, 『CEO Report』, 보험연구원
- 노건엽·박경국(2014), 「IFRS4 2단계 하에서의 보험부채 평가목적 할인율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 노건엽·장봉규·태현욱(2016),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목적 할인율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 노건엽·한상용·박희우·이연지(2022), 「K-ICS 대응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노건엽·황인창(2019), 「해외출장보고서」, 보험연구원 내부자료
- 박규서·김세중(2018), 「국제회계기준(IFRS17) 하에서의 사망률 위험조정 평가」, 『보험금융연구』
- 보험개발원(2017), 「IFRS17 도입에 따른 상품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CEO Report』
- _____ (2018), 「신제도 도입과 경제적 가정 산출」, 리스크보고서
- _____ (2019), 「굿바이, 고금리 계약」, 『CEO Report』
- 삼성생명(2022), 「Investor Day, IFRS17 & K-ICS」
- 송윤상(2021), 「신제도 도입과 경영패러다임의 변화」,
<https://www.youtube.com/watch?v=UWd6p1KTb8s>
- 신한금융투자(2022), 「신한 속보」
- 오창수·김경희·유인현(2017),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하의 할인율 적용방법」, 『계리학연구』
- 오창수·김성수(2017), 「IFRS17하에서의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 보증비용에 관한 연구」, 『계리학연구』
- 오창수·김수은(2018), 「IFRS17의 계약자행동을 반영한 금리연동형 보험의 GMSB 비용분석」, 『보험금융연구』
- 오창수·김형조(2020), 「국제회계기준하의 계약자행동을 고려한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보험부채평가」, 『계리학연구』

- 오창수·박규서(2016), 「국제회계기준(IFRS4)하에서의 이율보증평가 - 동적해지율 적용을 중심으로 -」, 『보험금융연구』
- 오창수·박종각(2016),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 영향분석」, 『계리학연구』
- 오창수·송상욱(2019), 「IFRS17 하의 확률론적 해지율 모형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 오창수·유인현·박규서·강원재(2013), 「IFRS4 기준하의 보험부채 평가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 오창수·은재경(2017), 「IFRS17 도입에 따른 종신보험의 보증형태별 보증비용 및 수익성 분석」, 『보험금융연구』
- 오창수·임현수(2017), 「IFRS17 도입에 따른 금리연동형보험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 비용에 관한 연구」, 『계리학연구』
- 오창수·정종국(2019), 「IFRS 적용을 위한 종신보험의 보험계약 부채 공정가치 산출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 윤영준(2011),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에 관한 연구 - 생명보험 회사를 중심으로」, 『계리학연구』
- 이기형·김해식(2004),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CEO Report』, 보험연구원
- 이장희·김동겸(2007),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이준호(2021), 「IFRS17 최근 동향과 이슈사항」, 금융정책포럼 발표자료, 보험연구원
- 임준환(2018), 「선도채권(bond forward) 매입과 금리위험관리」,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임준환·문혜정(20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채추종형 투자(LDI) 전략 활용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임준환·황인창(2017),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과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정도진·김수미(2019), 「IFRS17과 Solvency II의 비교 분석을 통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에 관한 설문조사연구」, 『국제회계연구』

조영현·이혜은(2017),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_____ (2018),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조재린·김해식(2015), 「일반손해보험의 부채시가평가와 보험위험계수 산출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조재훈(2016), 「손해보험 위험조정 MCMC 추정기법」, 『보험학회지』

한국보험계리사회(2022), 「IFRS17 실손해보험회사현 현금흐름추정 보고서 및 실무사례」, 2022 IAK 온라인 심포지엄

한국회계기준원(2016),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강의자료

_____ (2019), 「IFRS17 ‘보험계약」, 강의자료

한승엽(2021), 「IFRS17(보험계약) 수익성 정보의 이해와 해석 : 수익 인식 체계의 비밀관성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황인창·임준환·채원영(20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_____, 금융통계시스템

_____, 전자공시시스템

기획재정부,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_____, 50년 통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일본 금융청(2022), 「경제가치기반 지급여력규제 등에 관한 기본 내용의 잠정 결정에 대해」

Allianz(2022), *IFRS 9/17 @ ALLIANZ*

AXA Belgium(2019), “Offre temporaire de rachat total des contrats crest 20 souscrits a vant le 31 janvier 2002”

EIOPA(2016), *Consultation Paper on the methodology to derive the UFR and its implementation*

_____(2019), *Consultation Paper on the Opinion on the 2020 review of Solvency II*

Ethias(2018), “Annual results”

EU(2015),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2015/35, Article 82*

Hulle, Karel Van(2019), *Solvency Requirements for EU Insurers: Solvency II is good for you*, intersentia

IASB(2020), “Effective date of IFRS17 and IFRS9 temporary exemption in IFRS4”, *Staff paper*

IMF(2019), “Lower for Longer”,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Wilson, Thomas(2017), *Value and Capital Management*, Wiley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 저자약력

노건엽 KAIST 이학(통계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gynoh@kiri.or.kr

조영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youngcho@kiri.or.kr

이승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학 석사 / 연구원
E-mail : sj_lee@kiri.or.kr

연구보고서 2023-04

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경영

발행일 2023년 3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93021-03-3
979-11-85691-50-3(세트)

(정가 10,000원)